

충청학과 충청문화 2006년

기 획
논 문



- 허임의 생애와 활동 _ 손중양
-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 _ 김 호
- 허임의 공주 정착과 공주문화 _ 임선빈

목 차

■ 기획논문

- 허임의 생애와 활동 _ 손중양 3
- 허임과 ‘침구경험방’의 역사적 이해 _ 김 호 33
- 허임의 공주 정착과 공주문화 _ 임선빈 53

■ 연구논문

- 대전지역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_ 이경복 77
- 국내 백제사 관련자료의 사료적 성격과 후대인식 _ 이강래 107
- 행정복합도시의 역사문화성격과 문화재보존 _ 이해준 133
- 문화정보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_ 송충근 147

■ 휘 보

- 2006 주요연혁 173
- 연구사업 및 학술행사 174

■ 부 록

- 1~4집 목차 167



발 간 사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참된 의미의 지역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충청학과 충청문화』가 어느새 다섯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부(1996), 역사문화센터(1997),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2001)로 기반을 다져 2004년 봄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개원하면서 공주에 등지를 틀었고, 백제 금동관 발굴, 충청남도지 제1편 편찬, 백제사대계 자료집 편찬, 역사박물관 개관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

올해에는 두권으로 나누었습니다. 5-1집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 5-2집은 ‘한성에서 웅진으로’ 특집호로

옥고를 수록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읽는 여러분께서 초심을 잃지 않는 『충청학과 충청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 12.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 정 덕 기

허임의 생애와 활동

손 중 양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이사)

<목 차>

1. 머리말
2. 허임의 출생
3. 허임의 침구술 터득과 임진왜란
4. 침의(鍼醫)로 진출
5. 어의 허준(許浚)과 침의 허임(許任)의 역할분담
6. 권력의 풍파
7.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의 저술
8. 맺음말

1. 머리말

허임은 광해군·선조·인조대의 유명한 침의로, 우리나라 침구전문서의 효시인 『침구경험방』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의술에 대하여 당대의 대문필가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은 『침구경험방』의 발문에서,

태의 허임은 평소에 신(神)의 의술로 일컬어졌고 평생 동안 치료한 사람은 꼽을 수가 없다. 그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경우도 많아 일세에 명성을 떨쳤으며 침의(鍼醫)들에게서는 으뜸으로 추앙되었다.¹⁾

1) 허임, 강상숙·원치만·이은화 역, 『침구경험방』, 허임기념사업회, 2006, p.190.

라고 소개한다. 허임이 평생의 임상을 바탕으로 저술한 『침구경험방』은 조선의 의료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에 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17세기말 18세기초 조선에 유학 왔던 오오사카 출신 의사 산센준안(山川淳菴)이 『침구경험방』을 일본에 가져가 판본을 내면서 쓴 서문에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조선에 유학하였다. 면학하는 틈틈이 의인(醫人)을 접하여 자주 침구(鍼灸)가 의가(醫家)의 요체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실제로 병을 고치는데 그 효험이 가장 빠른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치료방법으로써 첫째가 모두 허씨(許氏)의 경험방을 배워서 하는 것이었다.²⁾

즉 조선에서 침구가 의료의 요체이고, ‘조선이야말로 침자(鍼刺)가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목격담을 전하면서,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고 감탄하였다.³⁾ 바로 이 탁월한 조선의 침구술이 하나같이 허임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 허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침뜸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침구전문업종(침구사) 제도가 명맥을 잇기 어렵게 되자 침구의원 허임과 그들의 역사도 밀려난 것이다. 이제 다시 동양의 전통의술 중에서 침술이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허임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허임기념사업을 위해서 우선 허임의 생애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했다. 400년 전의 인물을 취재한 기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허임의 생애와 그 활동을 짜 맞추어 보고자 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사료(史料)로 인하여 그의 삶의 주요 골격만 간신히 몇 개 찾아 흔적만 더듬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조사결과를 내놓는 이유는 앞으로 더 많은 사료가 나타나고, 역사적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경락에 기혈이 통하고 오장육부가 모두 숨을 쉬는 허임으로 다시 살아나서 자랑스러운 침과 뜸의 역사를 계승 발전 시켜

2) 『위의 책』, p.240.

3) 실제로 조선에 유학을 온 산센준안(山川淳菴)이 일본에 돌아가서 1725년에 『침구경험방』을 간행하였다. 중국청나라의 대표적 침구의서 하나인 『침구집성』이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베낀 것이다(허임/강상숙·원치만·이은화 역, 『침구경험방』, 허임기념사업회, 2006 참조).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2. 허임의 출생

허임은 자신의 저술인 『침구경험방』 서문의 말미에 하양 허임(河陽許任)이라고 밝히 자신의 본관이 하양(河陽)임을 보여주고 있다. 허임의 직계 후손들의 족보에 따르면 허임은 세종대왕 때 좌의정의 지낸 문경공 허조(許稠)의 9대 손이다.⁴⁾ 허조의 아들 허후(許?)는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에 반대하다 교형을 당하고, 또 손자 허조(許?)는 사육신 등과 함께 단종복위를 기도하다 발각되어 자결했다. 단종복위 기도에 연루되어 하양허씨 문경공과 가문의 직계는 사형을 당하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자식들은 먼 지방의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라”는 명에 따라,⁵⁾ 허임의 조상도 괴산으로 부처(付處)되어 관노에 편입된 후 전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노로 편입된 곳은 허임의 7대조 허담의 묘가 괴산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괴산이 아닌가 한다. 이후 허임가는 관노로 전전하였기 때문에 허임의 아버지 허억봉을 제외한 할아버지 종(宗), 증조조부 전(詮), 고조부(增), 6대조 인(仁) 등이 족보에 이름 외에는 전기기사가 기록되지 않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허임의 아버지는 허억봉(許億逢)⁶⁾ 혹은 허억복(許億福)⁷⁾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사대부의 문집 여러 군데서도 허임의 아버지 허억봉에 대해 나오는데, 허억봉의 ‘봉’자가 대부분 봉(鳳)으로 기록되어 있고, 족보에는 허락(許珞)으로 되어 있다. 이는 노비이름은 보통 한자로 음차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허임가에 대하여 태천 민인백(閔仁伯)⁸⁾의 문집 『태천집(苔泉集)』에는,

4) 『河陽許氏世譜』, 河陽許氏文敬公派中央宗親會, 1984 참조.

5)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을사조.

6) 『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신미조.

7) 『광해군일기』 권116, 광해군 9년 6월 갑인조.

8) 閔仁伯(1552~1626)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여흥. 호 태천(苔泉). 1589년 진안현감으로 있을 때 정여립의 난 평정하여 평난공신 2등이 되었다. 1590년 장예원 판결사. 1592년 임진왜란 때 황주목사로서 왕을 호종하였다. 1621년(광해군 13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저서에 태천집(苔泉集)이 있다.

허임의 아버지는 양양관노(襄陽官奴)이고 그 어머니는 재상 김귀영(金貴榮)의 사비이다. 침술을 배워 효험을 보여 광해군이 동궁으로 있을 때 그 간복(幹僕)을 하였다. 즉위 후에는 ‘찔러 뚫은 공훈’으로 봉군(封君)에 이르렀다. 간람(奸濫)이 극심하다. 그 아버지 억봉(億鳳)은 우의정 부원군에 추증되고, 어머니인 사비에게도 역시 정경부인에 봉해졌다.⁹⁾

라하여 허임의 아버지는 양양의 관노였고, 어머니가 재상 김귀영의 사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신상의 꼬리표는 허임의 전 생애에 걸쳐 명에처럼 따라 다닌다.

양양관노였던 허억봉이 『광해군일기』 등에 장악원(掌樂院)의 악공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려서 장악원의 악공으로 선상(選上)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억봉은 음악에 특별히 재주가 있었고, 특별히 대금을 잘 불었다. 문신 정사룡(鄭士龍:1491~1570)은 ‘허억봉의 대금 연주’라는 시에서 “재주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르렀지만 자네 오직 독보적이라”라 할 정도 이었다.¹⁰⁾

허억봉은 음악에 대한 재주로 1561년 장악원 첨정 안상이 『금합자보』를 만들 때 「적보(笛譜)」를 맡아 제작에 참여했다. 즉 안상은 『금합자보』의 편찬 경위를 밝힌 서문에서 악사 이무금은 부(飮)로써, 악공 허억봉은 적(笛)으로써 유명하다고 소개할 정도였다. 이후 허억봉은 장악원 전체에서 으뜸으로 꼽혀 마침내 전악(典樂)이 됐다. 전악은 조선시대 악인 중 최고 위치이다. 문신 서성(徐滄)이 1595년(선조 28) 경상우도 관찰사로 있을 때 평해군에서 옛 악사 허룡을 만나서 지은 시에서 전악 허억봉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허룡은 허억봉이 자신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10년 동안 전악을 한 대단히 뛰어난 악인이었다고 자랑하였다.¹¹⁾

허임의 어머니가 김귀영(金貴榮)¹²⁾ 가(家)의 사비였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허억봉의 혼인을

9) 『苔泉集』 권5, 驪興閔仁伯. 記聞 多光海時事 “許任官奴之子而至於封君”

10) 『湖陰雜稿』 권4, 南宮日錄. 許億奉弄大筚. 戲書.

11) 『藥峯遺稿』 권2, 詩. (전략)…吾兄名億鳳 以笛隨乘輿 十年爲典樂 進退隨鴻臚 少小習耳目 樂其可知歟 十二仍學箏 鯤絃飾蹕 哀音喉孤鶴 流聲咽宮渠 藝成頗解律 梨園播名譽

12) 김귀영(金貴榮 1519년~1594년(중종 14년~선조 27년)) 조선 중기 문신. 호는 동원(東園). 중종 때, 진사를 거쳐 1547년(명종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선조 즉위 뒤 도승지·예조판서를 역임하고 병조판서로서 지춘추관사를 겸하였고, 1581년(선조 14)에는 우의정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중 임해군(臨海君)과 동행 피난 중에 왜군에 잡혔다. 적장 가토의 청으로 화의를 성립시키고자 선조가 있는 의주(義州)로 갔으나, 선조의 오해로 귀양 가던 중에 죽었다.

유추해 볼 수 있다. 허임의 어머니가 사비로 있을 때의 상전인 김귀영은 1568년 5월에 예조판서가 되었다. 예조판서는 예악(禮樂)·제사·연향(宴享)·외교·학교·과거 등을 총괄 관장한 예조의 으뜸 벼슬이다. 따라서 허억봉이 근무하고 있던 장악원은 당연히 예조 소속이다. 허임이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1569년 또는 1570년) 직전에 김귀영은 예조 판서를 맡았다.

김귀영이 예조판서에 재임 중에 장악원 악공이었던 허억봉은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 것이다. 그러던 중에 예조판서의 집 비(婢)와 만나, 상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과 연애평정이 겹쳐서 혼인을 하고 허임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허임의 아버지가 관노이고, 어머니가 사비이었으므로 허임은 출생과 더불어 노비신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노비신분은 철저히 세습되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이면 일천즉천(一賤則賤)이 되는 신분법으로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양인이라도 어미가 사비(私婢)일 경우에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의하여 자식도 어미의 상전집 사노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허임도 김귀영가의 사노(私奴)가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허임의 벼슬길을 비난하는 많은 글 중에서 허임이 노(奴)였다는 표현은 없다. 그리고 허임은 약관의 나이 대에 이미 허교수라는 호칭이 붙은 6품의 관직을 하고 있었다.¹³⁾ 이로 봐서 허임의 아버지 대(代)에 이미 면천한 경우로 봐야할 것이다.

허억봉은 장악원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지만 잡직이었다. 조선시대 잡직은 천인에게도 주어지는 직종이었다. 따라서 허억봉이 장악원에서 정6품 전악을 지낸 것만으로는 천인 신분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허억봉이 양인으로 속량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 명종 시절로 보인다. 예컨대 장악원의 악공이나 악생이 공을 세우고 면천이 되고, 전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¹⁴⁾ 따라서 허억봉이 명종 16년(1561)에 금합자보 제작에 참여한 공과 재능을 인정받아 면천의 ‘몽은(蒙恩)’을 입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균의 스승 손곡 이달(孫谷 李達)이 쓴 ‘악사 허억봉에게 주는 칠언절구’의 시에 허억봉이 ‘곡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선조(先朝)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구절

13) 吳希文, 「을미일록」 『鎖尾錄』, 선조 28년(1595) 11월 초1일.

14) 송방송, 「악공과 악생의 시상」, 『樂掌謗錄研究』,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이 있다.¹⁵⁾ ‘선조(先朝)’는 ‘먼저의 임금’이라는 뜻으로, 즉 명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허억봉이 임금에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면천을 시켜준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허임의 어머니는 사비(私婢)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양인과 혼인했다고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허임의 어머니가 사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허임의 신분은 김귀영 가의 사노(私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아버가 관직을 하면 어미가 사비라도 자식은 보충대를 거쳐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보충대는 양반 특수층의 천첩(賤妾)이 낳은 자손이나 천인이 양인(良人)으로 될 때 입속(入屬)하는 병종(兵種)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6세에 보충대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근무를 마치면 면천(免賤)되면서 하급의 관직에 임명되는 특전이 있었다.

허임은 아버지 허억봉이 면천을 하고 장악원에서 잡직이지만 관직을 하고 있었다면 어머니가 사비였다고 하더라도 보충대를 거쳐 양인으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인의 경우는 장악원의 잡직이라도 동반의 관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장악원의 6품 관료 허억봉과 김귀영가의 사비 사이에서 태어난 허임은 16세에 보충대에 들어가서 1천일의 근무를 마치고 어릴 때 익힌 의술로 취재(取才)에 응하여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허임의 침구술 터득과 임진왜란

허임은 장악원에 출퇴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장악원 근처에서 태어나 살았을 것이다. 지금의 태평로 근처에 장악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장악원은 성종의 명으로 한성부 서부 여경방(餘慶坊, 오늘날 중구 태평로), 태상시(太常寺) 동쪽의 민가를 철거하여 세웠다.¹⁶⁾ 조선 성종 때에, 서대문 밖 태평관 근처에 악인과 기녀들이 몰려 살던 영기가(伶妓家)라는 집이 있었다는 기록¹⁷⁾으로 봐서 당시 악인들은 태평관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을

15) 『蓀谷詩集』 권6 七言絶句 “贈樂師許億鳳”

16) <http://history.seoul.go.kr>(‘중구 - 구리개 - 銅峴’ 중에서 / 서울시청 문화재과).

것이다.

그러면 허임이 언제 의술을 익히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허임은 자신이 의술을 익힌 과정을 『침구경험방』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명민하지 못한 내가 어려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의 집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노력하여 어렴풋이나마 의술에 눈을 떴다.”¹⁸⁾

라하고 있다. 즉 허임의 어머니가 병이나 침과 뜸으로 치료를 하는 어느 침구의원에게 치료를 부탁했고, 진료비는 허임이 의원 집에서 잡일을 해 주는 것으로 대신한 것은 아닐까. 어린 나이의 허임은 그 의원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며 남다른 재주와 노력으로 침구법 등 의술을 익혔던 것이다.

이때에 익힌 의술로 허임은 보충대 입속후 의학 취재에 의하여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원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전의감이나 혜민서에서 기라성 같은 조선 최고의원들로부터 의술을 익혀 임상경험과 의술의 깊이를 더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임 생애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전의감이나 혜민서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허임의 의관으로서 행적은 『광해군일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허임이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중 광해군(光海君)의 서남행에 수행하여 11월에는 해주에서, 12월에는 삼례역(參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는 광해군일기의 기록이다. 즉 허임이 광해군의 서남행에 수행하여 광해군을 침으로 치료했다는 것은 당시 그의 의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당시 허임의 의술은 전의감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을 것이며, 광해군을 수행한 의관 중 최고가 아니었을까 한다.

1593년 광해군은 평안도를 순회하다가 8월 중순에 황해도로 들어갔고, 8월 20일부터는 해주에 머물렀다. 11월에 이곳 해주에서 허임이 광해군을 치료한 것이다. 이를 통해 허임은 늦어도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인 1593년 하반기부터는 광해군과 동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해군일기』에는

17) 『慵齋叢話』 권2, “予以禮曹判書 提調掌樂院 若客人宴享使臣賜宴慣習取才之時 聽樂無虛日 又往來大平館 里四面皆伶妓家 崇禮門外敏甫如晦兩家婢僕皆善手 余常歷入聽之 又於大家傍 有洪仁山安左尹兩大宅 亦教婢僕絲竹 聲爭嘹亮 夜深不已 予每臥聽 亦一樂也”

18) 許任, 『鍼灸經驗方』, 序. “愚以不敏 少爲親病 從事醫家 積久用功 粗知門戶”

빈청이 아뢰기를, “허임(許任)을 녹훈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그 당시의 일기를 상고 해 보니 계사년(1593) 11월 7일 상계서 해주(海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을 맞을 때 허임이 입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삼례역(參禮驛)에서 주둔해 있을 때 허임이 입직하였으며, 이 뒤로는 으레 3일 간격으로 입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가(車駕)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처음부터 수행한 일은 현록(懸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하니 답하기를, “허임은 서남쪽으로 행할 때 공로가 아주 많았으니, 3등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하였다.¹⁹⁾

라하여 이때 광해군은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인 인후증으로 침을 맞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⁰⁾ 그후 광해군은 해주에서 개성을 거쳐 윤11월 8일에 서울에 들렀다가 다시 남쪽을 향한다. 윤11월 19일 과천을 거쳐, 수원과 온양을 지나 12월 1일 저녁에 공주에 이르렀다.²¹⁾ 이때 광해군의 서남행에 허임이 동행을 한 것이다.

광해군은 공주에서 13일경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16일 전주로 가서 기민들을 돌보는 등 민심을 수습하였다.²²⁾ 이 때 광해군을 수행한 허임은 12월 22일 전주 인근에 있는 삼례역(參禮驛)에 주둔해 있을 때부터 광해군에게 3일 간격으로 침을 냈다.

광해군은 다시 공주로 돌아와 1594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50여 일 동안 머물렀다.²³⁾ 이후 광해군은 홍주(지금의 홍성)로 갔다가 8월 7일 다시 공주로 옮긴다.²⁴⁾ 광해군은 20일 공주를 출발 8월 25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허임은 줄곧 광해군을 수행하면서 치료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허임은 적어도 1593년 11월부터 1594년 8월까지의 광해군과 동행하며 군민(軍民)을 치료했을 것이다. 특히 허임이 공주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때로 보인다. 광해군이 공주에 도합 80여일 체류해 있었기 때문에 허임은 적어도 그 이상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19)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임자조.

20)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경술조.

21)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경술조.

22)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신미조.

23)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1월 경진조;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경술·경오조.

24)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경신조; 권49 선조 27년 3월 기묘조; 권50, 선조 27년 4월 기유조; 권51, 선조 27년 5월 무인조; 권52, 선조 27년 6월 무신조; 권52, 선조 27년 7월 정축조; 권54, 선조 27년 8월 병오·신해조.

생각된다. 병을 고치는 의원인 허임이 공주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연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1595년 허임이 침의 박춘무가 태수로 있는 임천(현 부여군 임천면)을 방문한 것도 1594년의 공주와의 인연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임천은 공주와 그리 멀지 않은 부여 근처이다.

그런데 오희문(吳希文)의 『쇄미록(鎖尾錄)』²⁵⁾을 보면 허임이 1595년에 침의(鍼醫) 출신의 박춘무(朴春茂)가 태수(太守)로 있는 전라도 임천을 방문한 기록이 나온다. 이 기사에서 “소위 허교수(許教授)란, 그 이름은 임(任)이니, 침술(鍼術)을 배워서 종기를 고치는 교수(教授)가 되었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즉 1595년경에 이미 허임은 치종교수(治腫教授)가 되었던 것이다.

치종교수(治腫教授) 허임이 임진왜란 당시에 광해군을 수행하면서 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진왜란 당시 허임은 전장에서 광해군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병과 관군과 백성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또한 허임은 의학교수로서 전의감이나 혜민서에서 생도들에게 침구를 가르쳤을 것이다. 구임(久任: 임기에 구애 않고 장기간 근무하는 관원)과 교수와 훈도는 체아직(遞兒職)이 아니었다. 취재라는 시험을 거쳐 성적순으로 일정기간씩 번갈아 근무하며 녹봉을 받는 체아직보다는 훨씬 안정된 관직이었다.

허임은 당시 침술이 뛰어난 자에게만 맡겨지는 의학교수를 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그의 침구술이 삼의사에서 인정할 만큼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임이 “부모님의 병 때문에 의원 집에서 일하면서 의술에 눈을 떴다”고 『침구경험방』 서문에 밝힌 바에 따르면 허임은 전의감이나 혜민서의 의학생도로 침구학을 교육받아, 침의가 된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허임에게 침구술을 가르쳐 준 스승은 어떤 의원일까? 그도 침과 뜸만으로 병을 고치는 침구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나이의 허임에게 침을 가르쳐 의술에 눈을 뜨게 한 정도라면 그의 수준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595년 허임은 침의 박춘무가 태수로 있는 임천을 방문했다. 『쇄미록』에 나타난 허임의 태도는 대단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25) 吳希文, 『鎖尾錄』 「을미일록」, 선조 28년(1595) 11월 초1일.

“식사 후에 태수(太守, 朴春茂)를 관청으로 가서 보았으나 시끄러워서 조용히 이야기 하지 못했다. 다만 딸의 병세를 물었더니 날더러 아헌(衙軒)으로 가서 허교수(許教授)를 보고 물어 보라고 하고, 또한 침을 맞게 하라고 한다. 이에 즉시 의녀(醫女) 복지(福之)를 불러서 그 점혈(點穴)을 가르쳐 주고, 나는 즉시 먼저 돌아오고 복녀(福女)는 따라 오게 했다. 침으로 그 좌우 손 15여 곳에 놓게 하고 저녁밥을 먹여 보냈다. 소위 허교수(許教授)란, 그 이름은 임(任)이니, 침술(鍼術)을 배워서 종기를 고치는 교수(教授)가 되었다고 한다. 그 아버지는 곧 전악(典樂) 허억봉(許億鳳)이다. 임(任)은 처신하기를 양반같이 해서 태수(太守)의 자제(子弟)들까지도 역시 양반으로 그를 대접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서로 읊(揖)하고 들어가서 마주 앉아 존칭(尊稱)을 쓰는데 조금도 사양하는 빛이 없더니, 물러나와 복지(福之)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억봉(億鳳)의 아들임을 알았으니, 너무 지나치다. 몹시 분하다. 억봉(億鳳)은 피리를 잘 불어서 나도 평일에 역시 남고성(南高城, 尙文)의 집에서 피리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다. 남(南)은 매양 그를 불러다가 피리를 들었는데, 이제 빈주(賓主)의 예를 행하고 읊양(揖讓)하고 당(堂)에 올라서 마치 나와 대등한 사람처럼 대했으니 욕을 당한 것이 가볍지 않다. 더욱 몹시 분하다. 다만 또한 태수(太守)의 대접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른 때문이다. 또 지난번에 어머니를 위해서 헌수(獻壽)할 때 억봉(億鳳)이 전악(典樂)으로 기공(妓工)을 데리고 남고성(南高城)의 집에 와서 학춤을 추었는데 그 때 손에 박달나무 판을 들고서 여러 기공(妓工)의 앞에 서서 공정(公庭)에서 훨훨 춤을 추었으니, 그 아들의 사람됨을 알만 하다. 생각건대 난리를 치른 후에 군공(軍功)으로 해서 동반(東班)의 직함을 제수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²⁶⁾

이 기사는 허임의 두가지 면모를 볼수 있다. 첫째로 오희문이 “다만 딸의 병세를 물었더니 날더러 아헌(衙軒)으로 가서 허교수(許教授)를 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또한 침을 맞게 하라고 한다”에서처럼 외관 수령으로 나온 박춘무가 인정하는 침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허임이 사족이었던 오희문과 “이제 빈주(賓主)의 예를 행하고 읊양(揖讓)하고 당(堂)에 올라서 마치 나와 대등한 사람처럼 대했으니”라할 정도로 당당하였던 모습이다. 그럼에도 오희문의 허임에 대한 평은 당시 양반 사대부의 허임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허임 일가의 삶을 그려볼 수 있다.

26) 吳希文, 『鎖尾錄』 「을미일록」, 선조 28년(1595) 11월 초 1일.

4. 침의(鍼醫)로 진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명종 시절까지는 ‘침의’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실록에 침의(鍼醫)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선조시절부터이다. 1586년(선조 19) 10월 1일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침의는 오변. 어의를 모두 들어오라고 했는데, 침의가 한사람 끼어 있었다는 기록이다.²⁷⁾

『선조실록』에서 임금이 침을 맞는 장면은 선조 16년(1583) 8월 4일 “상이 팔이 아파 침을 맞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누가 침을 놔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이 1589년(선조 22) 4월 10일에 침을 맞는데, 침을 놓은 사람은 전 현감 김윤세(金尹世)라고 되어 있다.²⁸⁾ 4월 13일 “상이 두 차례 침을 맞았다.”는 기사²⁹⁾가 있지만 김윤세가 침의라는 기록은 없다. 그는 신령현감을 지낸 인물로, 의관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 중에서 침놓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추측된다.³⁰⁾

침의가 임진왜란 전까지 내의원에서는 뚜렷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본격적으로 침의가 등장하는 시기도 임진왜란 이후이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외과의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또 병약했던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이 더욱 깊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약의(藥醫)들이 내의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임금의 치료는 주로 약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임금의 치료에 침의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양반사대부층이 침구술을 대하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이후 처음 나타나는 내의원 침의의 이름은 박춘무·김영국·정희생·심발 등이다. 이들이 침의로서 허임 보다 앞서 내의원에서 활동한다.

침놓는 의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기록은 1595년(선조 28) 이후의 기록이다. 1595년(선조28)

27) 『선조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임술조.

28)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4월 병술조.

29)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1589) 4월 기축조.

30)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1588) 윤6월 임인조.

4월 13일, 어의 허준·이연록·이공기 등과 침의 박춘무·김영국·정희생이 입시한 중에 선조가 침을 맞는다.³¹⁾ 이러한 기사에서 기록하는 순서는 서열을 나타낸다. 즉 어의가 침의보다 서열이 앞선것을 알 수 있다. 어찌됐든 의관으로 침의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침구술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임금이 침을 맞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선조가 별전에 나가 침을 맞았다.³²⁾

침의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때는 1596년(선조 29) 5월 11일. 어의 양예수·허준·이공기와 함께 침의 박춘무·심발(沈發)·김영국이 입시하여 침을 놓는다. 선조는 “전에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지난 가을에 침을 맞은 뒤부터 아픈 증세는 덜한 듯하다”고 하면서 침술의 효과를 인정했다. 아직 낫지 않는 귀울림 증상을 비롯 손과 다리의 통증을 치료하고자 다시 침의들에게서 침을 맞고자 했다. 그 후 선조는 몇 차례 더 침을 맞았다.³³⁾ 내의원에서 침의의 위상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뒤 침의로는 박춘무가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낸다. 1597년 4월 14일의 침 시술이 있는 지 7일 후인 4월 21일, 충청도 지역의 임천군수로 있는 박춘무를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바꾸어 배치해 달라는 청을 내의원에서 올렸다. 박춘무는 4월 23일 인천부사(仁川府使)에 임명된다. 박춘무가 이때의 침 치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선조실록』에서는 1598년(선조 31) 9월 22일 ‘박춘무와 허임과 함께 무단히 출타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10월 15일 새로 부평부사(富平府使)에 임명되는 기록이 이어진다. 이는 침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져서, 무단히 출타를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며, 침의를 가까이두기 위하여 근기의 수령직에 제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왕실 의료에 있어서 침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기사이다.

1598년(선조 31) 3월 들어서도 임금의 한기(寒氣)는 여전하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고 부기가 있었다. 3일 내의원 도제조 이원익 등의 관원들이 왕에게 침 맞기를 권했다.³⁴⁾ 선조는 7일 “나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다.”며 병세가 호전될 때까지 세자(광해군)로 하여금 중국 장수 접대하는 일 등 군무까지 대행하게 했다. 12일에는 내의원 어의들의 증세진단과 약물처방에 대해 보고하자 선조는 “약은 짓지 말라.”고 잘라 말하고, “날씨가 따스해지기를 기다려 침을 맞는 것이 좋겠으며 이 밖에는 달리 할 만

31) 『선조실록』 권62, 선조 28년 4월 을묘조.

32)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기해조; 권66, 선조 28년 8월 임인·무신조.

33)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경진·계미·정해·경인조.

34)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무자조.

한 일이 없다.”며 약의(藥醫)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침 맞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때쯤 허임의 이름이 『선조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1598년(선조 31) 9월 22일 “허임과 박춘 무가 무단으로 어디엔가 나가 있으니 죄를 물어야 한다”는 내의원의 보고다.³⁵⁾ 이때를 전후 해서부터 허임은 내의원의 침의였다. 10월 5일과 9일 선조는 침을 맞는다.³⁶⁾ 허임도 참여했다.

1601년(선조 34) 3월 24일 내의원 도제조와 부제조가 선조에게 “신들이 다시 의관들과 반복해서 상의해 보니 반드시 먼저 여러 차례 침을 맞아 경맥(經脈)을 통하게 한 뒤에, 허한(虛寒)과 사기(邪氣)가 모이는 곳을 보아서 그곳에다 우각구(牛角灸)를 떼서 진기(眞氣)를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아뢰고 “병을 치료하는 처방의 차례가 그러하니 내일은 먼저 침만 맞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품의를 했다. 다음날인 25일 선조가 편전에서 침을 맞았다.³⁷⁾ 어의인 허준 이공기가 함께 입시한 가운데 침의 허임과 김영국이 침을 놓는다. 이때부터 임금의 침치료에 허임이 줄곧 참여하는 모습이 실록에 나타난다.

이 때 또 한사람의 침의인 남영이 합류했다. 3월 29일 “상이 침을 맞았다.”고 하고 “입시 인원은 전과 같다. 침의(鍼醫) 유학(幼學) 남영(南嶸)도 입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⁸⁾ ‘유학(幼學)’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이란 뜻이다. 남영은 유생 출신의 침의라는 이야기다. 이즈음 4월 10일까지 침의들은 이틀에 한차례씩 7차례에 걸쳐 임금에게 침과 뜸을 놓았다.

1602년 6월 12일 선조가 비망기로 전교한 내용에서 허임은 김영국·박인령 등과 함께 침을 잘 놓아 ‘일세를 울리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모든 의관(醫官)은 서울에 모여서 상하의 병을 구제하여야 하는데, 의관 김영국·허임·박인령(朴人苓) 등은 모두 침을 잘 놓는다고 일세를 울리는 사람들로서 임의로 고향에 물러가 있으나 불러 모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설사 위에서 뜻밖에 침을 쓸 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의(內醫)와 제조(提調) 등은 그 직책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5)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갑진조.

36)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정사·신유조.

37)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계해조.

38)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정묘조.

약방(藥房)에 말하라.”³⁹⁾

침술에 뛰어난 침의들을 불러 모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다. 이들 명의들이 그간 서울에 있지를 않고 다른 지방에 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상에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왕실의료에서 침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허임도 그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어의 허준(許浚)과 침의 허임(許任)의 역할분담

선조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 선조의 병은 잘 낫지를 않았다. 날짜만 끝던 선조의 병은 1604년(선조 37) 9월 23일 한밤중에 편두통의 발작을 일으킨다. 당시 내의원의 수의였던 허준은 침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 이미 침의 허임을 불러 놓은 상태였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자인 허준과 최고의 침구의원으로 성장하는 허임이 동시 등장하여 선조의 편두통을 치료하는 장면이 실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경 말에 상이 앓아 오던 편두통(偏頭痛)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直宿)하는 의관(醫官)에게 전교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입직(入直)하고 있던 승지가 아뢰기를,

“의관들만 단독으로 입시(入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입직한 승지 및 사관(史官)이 함께 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침을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물으려는 것이니, 승지 등은 입시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허임이 이미 함문(閤門)에 와 있습니다.”

하니, 들여보내라고 전교하였다. 2경(更) 3점(點)에 편전(便殿)으로 들어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하기

39)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임인조.

는 합니다마는, 침의(針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입시하고 제조(提調) 이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남영이 혈(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상이 침을 맞았다.⁴⁰⁾

선조의 편두통 치료 장면에서 허준은 침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침의와의 역할분담에 대해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략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허준과 30대로 추정되는 허임이지만 허준은 침의 허임의 이론을 존중하고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일이 있는 지 한 달 뒤인 10월 23일 선조는 편두통을 침으로 치료할 당시의 관계자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의 지시를 내린다. 잘 낫지도 않고 날짜만 끝던 선조의 편두통이 침의 허임과 남영의 침법으로 병세가 잡힌 것이다. 어의 허준에게는 좋은 말(숙마) 1필을 하사하고, 침의 허임과 남영에게는 한 자급을 더하도록 했다. 그리고 6품의 허임과 7품의 남영을 동시에 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파격 승진시켰다.⁴¹⁾

이러한 파격 승진에 대하여 당시의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10월 28일과 29일 연 이틀에 걸쳐 사헌부에서 허임과 남영의 통정대부 승진을 고치라고 잇달아 상소를 한다. 그러나 선조는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린다.⁴²⁾ 실록을 기록한 사관도 이에 대해서 “허임(許任)·남영(南嶸)은 모두 6~7품의 관원으로서 하찮은 수고를 인연하여 갑자기 당상으로 승진하였으니 관작의 참람됨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며 비난의 논평을 달고 있다.

어쨌든 침구의 효능에 대한 임금의 신뢰는 한층 높아졌다. 선조는 1605년(선조 38) 8월 4일 어떻게든 침의가 서울 근처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자신과 사대부의 병을 치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한다.⁴³⁾

같은 해 11월 3일 선조는 “내가 필요 없는 약을 복용한 것이 이제 해를 넘기게 되었다.”

40) 『선조실록』 권178, 선조 37년 9월 경오조.

41)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기사조.

42) 『선조실록』 권180, 선조 37년 10월 갑술·을해조.

43) 『선조실록』 권190, 선조 38년 8월 병오조.

며, “이 약을 복용하여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복용하곤 할 따름이다.”라고 푸념을 한다.⁴⁴⁾ 허준의 약 처방에 대한 불만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침구(鍼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진다. 선조는 한겨울인 11월 22일 침을 맞기도 했다.

1606년 4월 25일 선조는 침을 맞을 맞고 싶다고 하면서 ‘혈(穴)을 의논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말고 침의(針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고 요구한다.⁴⁵⁾ 침의가 간섭을 받지 않고 혈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강조한다. 내의원에서 침의보다는 어의들이 서열이 위라는 이유로 침의들이 혈을 정하는데 간섭하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선조는 이러한 행태를 경계한 것이다. 선조는 이후 4월 26일부터 10일까지 2~3일 간격으로 침을 맞는다. 시간은 사시(巳時), 장소는 별전. 왕세자와 내의원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 부제조 윤방(4월 29일부터는 부제조 최천건, 기사관(記事官) 임장·박중현·김성발이 늘 함께 참여했다. 의관으로는 어의(御醫) 허준·조홍남·이명원이 입시했고, 침의(針醫) 남영·허임·김영국이 참여하여 침구를 놓았다.⁴⁶⁾ 8일의 기록에는 사시에 침을 맞고, 약 4시간 후인 미시에 뜸을 떴다.

5월 23일 선조는 다시 침구치료를 받고자 했다. 그는 “침술은 침의에게 물어서 그에게 기술을 다하게 해야지 다른 의원이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한 번 강조한다.⁴⁷⁾ 선조는 이듬해인 1607년 가을에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 간격으로 침을 맞았는데,⁴⁸⁾ 이때도 “침혈(鍼穴)을 감하는 것은 채유종(蔡有終)의 말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의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침의 채유종이 직접 혈을 정했는지 다른 어의가 관여했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⁴⁹⁾ 선조는 침혈을 정하는 것은 침의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침의가 어의보다 내의원에서의 서열이 낮아 자칫 침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어의가 침혈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유종은 당시 신의로 알려진 유명한 침의였다.⁵⁰⁾

44) 『선조실록』 권193, 선조 38년 11월 계유조.

45)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계해조.

46)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갑자·정묘조; 권199, 선조 39년 5월 기사·신미·계유·을해·정축조.

47) 『선조실록』 권199, 선조 39년 5월 경인조.

48) 『선조실록』 권215, 선조 40년 8월 기축조~권216, 선조 40년 9월 임자조.

49) 『선조실록』 권216, 선조 40년 9월 을미조.

50) 『宋子大全』 권203, 시장(諡狀), 택당(澤堂) 이공(李公) 시장.

선조는 1596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침구진료를 받는다.⁵¹⁾ 이때 의관으로서 어의는 허준·조홍남·이명원이었고, 침의는 남영·허임·김영국·유계룡(柳季龍)이 입시하였다. 9월에 침을 맞을 때는 침의 중에 유계룡이 추가됐다. 선조는 지난 5월 “외방에 침술을 지닌 자가 있으면 빠짐없이 불러다가 수시로 의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침구명의들을 수소문 하여 두는 일은 내의원의 일상 업무 중 하나였다.

9월 이후 약을 복용했지만 선조의 병은 갑자기 악화됐다. 10월 9일 선조가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 이때 달려온 의원은 허준·조홍남·이명원이었다. 침의는 보이지를 앓는다. 응급 상황에서 허준은 청심원과 소합원 등 여러 약을 번갈아 올렸고, 선조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⁵²⁾ 이듬해인 1608년(선조 41) 2월 1일 선조는 다시 쓰러졌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허준은 1년이 넘도록 약을 처방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임금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추국의 대상이 됐다. 결국은 귀양을 가게 됐다. 허준은 이듬해인 1609년 11월에 석방됐다. 사간원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광해군의 명으로 돌아와 동의보감을 마무리 한다.

즉 선조대에 침구의 비중과 위상이 높아졌고, 바로 이 기간 중에 허임은 허준과 나란히 활동한 침구의원이었다.

6. 권력의 풍파

임진왜란 중인 1593년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삼례에서 광해군을 치료한 인연은 전쟁 후에도 계속 됐다. 태천집에서 “(허임은) 광해군이 동궁으로 있을 때 그 간복(幹僕)을 하였다.”라고 한 기록은 광해군이 동궁시절에 허임이 내내 주치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⁵³⁾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침을 맞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광해군은 세자로서 입시하여, 허임이 선조를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다. 그리고 광해군도 즉위초년

51) 『선조실록』 권209, 선조 39년 9월 경진·임오·갑신·병술조.

52) 『선조실록』 권217, 선조 40년 10월 무진조.

53) 『苔泉集』 권5, 記聞 多光海時事 “許任官奴之子而至於封君”

부터 침을 맞기 시작했다.⁵⁴⁾

광해군 즉위 다음해인 1609년 10월, 당시 허임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를 딱하게 여겨 허임에게 마전군수에 임명한다.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일대가 당시 마전군에 속하여 있었다. 광해군이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데 대한 보답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 근처에 근무하도록 하여 병이 나면 불러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줄기차게 반대했다.⁵⁵⁾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사헌부와 사간원이 번갈아가며 계속 허임의 마전군수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광해군은 마지못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다음날인 16일 허임을 첨지(僉知: 중추부의 당상 정3품 무관 벼슬) 근무처가 나면 제수하라고 하고, 생활이 어려우므로 우선 그 품계에 준하는 녹을 주라고 명한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 명은 이듬해 초까지도 실행되지 않았다. 사대부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허임 스스로가 서울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은 1610년 2월 24일 허임과 김영국을 불러 서울에 머물게 하라고 명을 내린 것으로 보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다.

3월을 10여일 지난 윤 3월 중순에 사간원은 허임이 전라도 나주에 가 있는데, 여러 번 재촉했는데도 안 온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윤3월 12일과 13일, 16일 연달아 사헌부는 허임이 임금을 무시했으니 국문하라고 요구한다.⁵⁶⁾ 광해군은 허임을 끝까지 감쌌다. 광해군은 선조와 마찬가지로 침의들을 늘 가까이 두려고 했다. 김영국과 허임을 서울에 머물도록 한 것 외에도 침의 유대명도 직을 붙여 주어 가까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1610년(광해군 2) 12월 24일 내의원에서 건의하여 다음해 봄에 임금이 침을 맞도록 하기 위해 금구(金溝: 지금의 김제)에 사는 김영국, 옥천(沃川)에 사는 전징, 거창(居昌)에 사는 김귀상 등 전국에 있는 침구술의 명의들에게 말을 지급하여 올려 보내도록 했다.⁵⁸⁾

54) 『광해군일기』 권9, 광해군 즉위년 10월 임술조.

55)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1년 10월 병진~계해조.

56)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정사·무오·신유조.

57) 『광해군일기』 권31, 광해군 3년 7월 기유조.

광해군은 1612년(광해군 4) 1월말~2월초에도 침을 맞았다.⁵⁹⁾ 유명 침의들을 불러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침을 맞기 위해서는 불러온 침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해 9월 4일 내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남영, 김영국, 전징이 멀리서 불러와 있었다.⁶⁰⁾

그리고 9월 7일 광해군이 “침의(針醫) 허임(許任)·남영(南嶸)·김영국(金榮國) 등에게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을 제수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때 허임도 함께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⁶¹⁾ 다음달 10월 들어서 허임(許任)·남영(南嶸)·김영국(金榮國)·전징(全潁)이 참여하여 광해군에게 침을 놓는다. 그 후 광해군은 이를 간격으로 침을 맞았다.⁶²⁾

이때 허준과 이항복도 입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10월 7일의 기록에는 내의원 의관선발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의 허준을 비롯한 내의원 관계자들이 등장한다. 허준은 늙고 일이 많은 가운데서 교육도 담당하고 있었다. 허임은 허준이 귀양을 갔다 돌아온 뒤에도 함께 내의원에서 활동했고, 동의보감의 편찬과정과 여러 의서의 판본제작과정도 지켜봤다. 이는 훗날 허임이 『침구경험방』을 책으로 펴내는데 좋은 견문이 됐을 것이다.

허임이 임진왜란 중인 1593년과 1594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를 광해군과 동행하며 침구진료를 한 공으로 녹훈이 된 때는 이때쯤이다. 광해군은 1612년(광해군 4) 8월 9일 임진왜란 당시의 공로자에게 녹훈을 한다. 광해군은 “침의(針醫) 허임(許任)은 서로(西路)에서 남하할 때 호종하여 공로가 있으니 가자하라.”며 3등 공신에 명한다.⁶³⁾ 10월 7일 녹훈도감 김시현이 “허임(許任)을 녹훈할 것을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원단자(元單子)를 금방 입계하였으니, 아직 내리지 않은 단자를 다시 내리신 다음에 고쳐서 부표(付標)하겠습니다.”라며 공신 책봉의 수순을 보고한다.⁶⁴⁾ 공신에 봉해지면 초상화를 후세에 전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때의 공신 호칭은 ‘위성공신(衛聖功臣)’이다. 위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따라 이천(伊川)·전주(全州)에 갔던 이들을 녹훈한 것이다.⁶⁵⁾

58) 『광해군일기』 권31, 광해군 2년 12월 을미조.

59) 『광해군일기』 권50, 광해군 4년 2월 계유조.

60)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을미조.

61)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무술조.

62) 『광해군일기』 권58, 광해군 4년 10월 임술조.

63) 『광해군일기』 권56, 광해 4년 8월 경오조.

64) 『광해군일기』 권58, 광해 4년 10월 정묘조.

65) 『광해군일기』 권64, 광해군 5년 3월 경오조.

이때 공신들이 받은 녹훈은 다음과 같다.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한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말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노비 3구, 전지 2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⁶⁶⁾

허임에 대한 사간원과 사헌부 관료들의 시비는 끊이지를 않았다. 이들 기관의 업무는 임금의 면전에서 간언(諫言)을 하는 것이 일이었다. 한번은 임금이 침의(針醫)를 소집했는데 허임이 지각을 하자 사간원과 사헌부가 허임을 국문하라고 거듭 촉구한다.⁶⁷⁾ 국문(鞫問)이란 모역죄(謀逆罪) 등 큰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왕의 명령에 의하여 임시로 국청을 설치하고, 죄인을 다룰 최고의 담당자인 위관을 정하고, 위관 주재 하에 죄인을 신문하던 일을 말한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허임의 지각을 국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광해군은 허물을 묻는 추고(推考) 정도에는 동의했지만 국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의들에게 관직을 주도록 촉구한다. 광해군은 그해 7월 3일 “침의(針醫) 등에 대하여 승(承)을 상고하여 실직에 제수하라”고 령을 내렸다.⁶⁸⁾ 1615년(광해군 7) 11월 28일 “허임(許任)과 남영(南嶸)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제수하되, 속히 거행하라.”고 재촉했다.⁶⁹⁾

1616년(광해군 8) 1월 23일 광해군은 허임을 영평현령(永平縣令)으로, 남영을 음죽현감(陰竹縣監)으로 삼았다.⁷⁰⁾ 영평현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永中)·일동(一東)·이동과 영북면(永北面)지역을 관할한 행정구역이다. 음죽현은 경기도 이천시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치해 둔 것이다. 이번 임명은 큰 반대 없이 이행이 됐다.

광해군은 1616년(광해군 8) 9월에도 여러 번 침을 맞았다.⁷¹⁾ 그리고 9월 13일 침의(針醫) 안언길(安彦吉)과 백학기(白鶴起) 등에게 수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챙긴다. 광해군은 11

66) 『孤潭逸稿』 권4, 附錄.

67) 『광해군일기』 권79, 광해군 6년 6월 계사조.

68) 『광해군일기』 권80, 광해군 6년 7월 계축조.

69) 『광해군일기』 권97, 광해군 7년 11월 경자조.

70) 『광해군일기』 권99, 광해군 8년 1월 갑오조.

71) 『광해군일기』 권107, 광해군 8년 9월 기묘·경진조.

월 27일에는 침의 허임·유대명·김귀상에게, 12월 9일에는 침의 안언길에게 침 맞을 때 입시한 대가를 하사한다.⁷²⁾ 광해군은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침을 맞고 있었다.⁷³⁾

이 당시 정국은 권력다툼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때 도제조는 이이첨이었다. 이이첨은 대북과의 핵심으로 정인홍과 함께 광해군 당시 권력을 주물럭거린 자이다.⁷⁴⁾

이런 중에 광해군은 1617년 2월 12일 허임을 영평형령에서 다시 양주목사로 승진 발령했다.⁷⁵⁾ 그러나 이 발령은 사헌부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 때 사헌부에서는 “허임(許任)은 아버지는 관노(官奴)이고 어미는 사비(私婢)로, 비천한 자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라며 그의 출신성분을 들고 나온다.⁷⁶⁾ 양주는 서울의 북쪽 길목으로 지역이 넓고 사람 이 많은 요지였다. 이곳 수령을 허임에게 임명하니 사대부 관료들의 반대는 집요했다.⁷⁷⁾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같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반대를 하자, 3월 9일 양주목사 허임(許任)과 부평부사 이익빈(李翼賓)을 서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

광해군은 서울 인근에 유능한 침의들을 수령으로 배치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서 침을 놓도록 했다. 1617년(광해군 9) 6월 6일 허임과 유대명을 불러서 손에 난 종기를 치료했다. 6월 21일 치료를 마치고 허임은 광해군에게 하직을 하고 임지인 부평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있다. 사관은 이때의 『광해군일기』를 쓰면서 “허임이 악공 허억복(許億福)의 아들인데 침술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로 2품의 관직까지 올라갔다”며 좋지 않은 논조로 언급하고 있다.⁷⁸⁾ 11월 10일의 『광해군일기』에서도 사관은 “허임과 유대명은 다 열자(孽子)인데 침놓는 재간이 있었으므로 총애를 받아 특별히 기읍(畿邑)의 수령에 제수된 것이다.”라며 비아냥 거린다.

광해군은 1617년 여름부터 안질을 앓기 시작해 수년 동안 시달린다. 9월 9일부터 안질 때문에 침을 세 번 맞고 중지하였다가, 11월 10일 부평부사 허임과 금천현감 유대명을 올

72) 『광해군일기』 권109, 광해군 8년 11월 갑오조; 권110 광해군 8년 12월 을사조

73) 『광해군일기』 권110, 광해군 8년 12월 병오·갑인·임술조

74) 『광해군일기』 권111, 광해군 9년 1월 계유·갑술조

75)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정미조

76)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계축조

77) 『광해군일기』 권112, 광해군 9년 2월 갑인·~신유조; 권113, 광해군 9년 3월 갑술·임자조

78) 『광해군일기』 권116, 광해군 9년 6월 갑인조

려 보내도록 하여 12일부터 이틀간격으로 침을 맞았다.⁷⁹⁾ 그러나 잘 낫지를 앓았던 모양이다.

다음해인 1618년 1월 14일 광해군은 “내가 지난해 여름과 가을 무렵부터 우연히 안질(眼疾)을 앓게 되었는데, 침(針)과 약을 쓴 것이 며칠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떤 때는 좀 나은 듯하다가도 더 심해지곤 하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상태”라며 고충을 이야기 한다.⁸⁰⁾

이렇게 안질로 인하여 정사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은 오래 지속되었다. 안질로 침 맞는 기록이 전해 1617년 9월부터 이듬해 윤 4월까지 무려 8개월 이상 이어진다.⁸¹⁾ 이때는 폐모론을 둘러싸고 각 정파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정국이었다.

이런 중에도 1619년(광해군 11) 9월 10일 “침의(針醫) 전징(全澄)과 이제인(李濟仁)을 실직에 제수하고 배이룡(裴以龍)은 전에 내린 전교를 자세히 상고하여 이번 정사에서 실직에 제수하라.”라 침의들을 창긴다.⁸²⁾ 12월 13일에는 시약청 관계자 전원에게 상을 내린다.⁸³⁾ 광해군은 이날 “부평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은 위에서 편찮으실 때 여러 해 입시하여 침을 놓은 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들으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병세가 중하다고 하니, 자급을 더해 주도록 하라.”며 특별히 전교했다.⁸⁴⁾ 허임이 노모를 모시고 부평부사를 하고 있는데, 노모의 병세가 중하다는 이야기다. 1622년(광해군 14) 4월 6일에 광해군은 허임을 남양부사에 특별히 제수했다. 이때 또 광해군 일기를 쓴 사관은 허임이 악공 허억봉의 아들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⁸⁵⁾

광해군 집권 말기. 1623년 들어서 이귀 등 인조반정세력이 한창 거사를 준비하고 있던 1월 20일 광해군은 침의 유대명까지 불러올렸다.⁸⁶⁾ 그리고 침을 맞았다. 그랬는데 2월 19

79) 『광해군일기』 권121, 광해군 9년 11월 계유·을해·정축·경진조.

80) 『광해군일기』 권123, 광해군 10년 1월 갑술조.

81) 『광해군일기』 권124, 광해군 10년 2월 기해·경자·경술조; 권125, 광해군 10년 3월 임술·정묘·기사·계유·무인·계미조; 권126, 광해군 10년·4월 계사·무신·병진·경사조; 권127, 윤4월 경신·임술·계해·을축·병인·병묘·임신·계유·을해·병자조.

82) 『광해군일기』 권144, 광해군 11년 9월 기축조.

83) 『광해군일기』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임술조.

84) 위와 같음.

85) 『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신미조.

86) 『광해군일기』 권185, 광해군 15년 1월 신해조.

일 어의 조흥남 등 의관들에게 일제히 죄를 물었다.⁸⁷⁾ 내의원에서 문안을 올리던 때 하교한 일을 발설했다는 이유였다. 광해군은 이때 대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와서 문안하지 말고 나의 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침과 약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고 하고, “허임(許任)·안언길(安彦吉) 등은 즉시 모두 내려가도록 하라.”했다. 그리고 “어의 조흥남(趙興男)·신득일(申得一), 침의 허임·유대명(柳大鳴)·유계룡(柳季龍)·안언길 등은 마땅히 잡아다 추국해야 할 것이나 내가 현재 조섭중에 있으니 지금 우선 추고만 하고 녹일등(一等)을 감봉하도록 하라.”며 징계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광해군의 병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3월 9일 다시 침을 맞으려고 했다.⁸⁸⁾ 하지만 3월 12일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安國信)의 집에 숨었다. 결국 곧 붙잡혀 귀양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허임은 그 때 남양부사로 임지에 가 있었다.

7.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의 저술

당시 침구위원들의 쓰임새는 다양했다. 옥에 갇혀있는 자에게도 침의를 보내 치료하게 했다.⁸⁹⁾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료에도 침의가 배치되었다.⁹⁰⁾ 사대부들도 몸이 아파 침을 맞는 경우가 잦아졌다. 『선조실록』에는 사대부들이 침을 맞는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임금도 직접 침의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허임도 왕의 명으로 고위관료의 침구치료에 자주 파견되었다. 선조시절 이수록(李綏祿)이 위급한 병에 걸려 집으로 가 있어서 선조가 내의원에서 약물도 만들어 보내고, 침의인 김영국과 허임을 파견해서 번갈아가며 살피고 구완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⁹¹⁾

선조와 광해군 시기의 고관이었던 심희수가 침을 맞았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광해군 1년(1609) 8월 16일 우의정을 있는 심희수가 또 침을 맞기 위해 휴가중이라는

87) 『광해군일기』 권186, 광해군 15년(1623) 2월 갑인조

88) 『광해군일기』 권187, 광해군 15년(1623) 3월 9일.

89) 『광해군일기』 권52, 광해군 4년(1612) 4월 18일.

90) 『광해군일기』 권126, 광해군 10년 4월조 및 권132, 광해군 10년 9월조.

91) 『白江先生集』 권15, 「行狀」 “先考贈領議政驪州牧使府君行狀”

기록이 발견된다.⁹²⁾ 열흘 후에 심희수가 광해군 앞에서 자신이 아파서 침을 맞은 경위를 소상히 설명한다.⁹³⁾ 이 때 심희수는 침의 허임과 유의(儒醫) 박지수에게 침을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다.⁹⁴⁾

허임은 임금의 명을 받거나 혹은 관료들에게 직접 불려가서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 이런 중에 허임은 노년에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이경석이 불려 그의 집에 있는 환자에게 침을 놓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던 듯, 허임에게서 침을 맞은 뒤 회복되는듯하다가 얼마 안가서 사망을 했다. 이 기록은 이경석의 아버지인 이유간의 우곡일기 1618년(광해군 10) 4월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석(이경석)이 허임을 찾아가 와서 침을 놓기를 청했다. 넓적다리에서 피고름이 거의 3-4사 발이나 뽑아냈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극심한 통증이 이미 종기가 되는 징후였는데 서울로 올라 온 후 여러 의사(醫者)들이 와서 보고도 모두 종기를 알지 못했는데 허임만이 혼자 알았다. 과연 이름을 헛되게 얻은 것이 아니다...⁹⁵⁾

이경석의 아버지도 허임의 명성이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허임을 부르러 갔던 이경석은 곧 있을 인조반정의 핵심 세력이 된다. 나중에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이경석은 정쟁의 와중에서도 허임과 꾸준히 교류를 했던 모양이다. 허임의 인조 때 기록은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된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을 관직에서 내쫓기 시작했다. 경기감사는 3월 24일 침의 중에서 금천현관을 하고 있던 안언길을 쫓아내라고 계를 올린다.⁹⁶⁾ 그리고 26일 경기감사는 남양부사 허임도 쫓아내라고 인조에게 청한다.⁹⁷⁾

승정원일기에서 허임에 관한 기록은 그 후 인조 6년에 등장한다. 1628년(인조 6) 4월 14일 내의원 관원에게 시상을 하라고 인조가 전교한다. 이때는 허임의 이름이 침의 중에서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어의 신득일·이영남, 의약상참 이유응·민강, 침의 허임·

92)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갑자조.

93) 『광해군일기』 권19, 광해군 1년 8월 갑술조.

94) 『一松集』 권5, 筭 辭接伴使

95) 『愚谷日記』 戊午日課 4월 小 14일.

96) 『승원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4일.

97) 『승원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6일.

배룡·정대봉·박태원이 각 반숙마 1필씩을 상으로 받는다.⁹⁸⁾ 그리고 9월 2일 허임이 이유성과 함께 인조에게 침을 놓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 보인다.⁹⁹⁾ 이 모습은 같은 해 9월 3일자 응천일록에도 기록되어 있다.¹⁰⁰⁾

인조는 1628년(인조 6) 8월 26일 27일, 9월 2·6·8·10일 등 줄곧 침을 맞았다.¹⁰¹⁾ 이때는 허임이 입시켰다. 다음달 10월 22일 인조는 침놓을 때 참여한 내의원 관원과 의원들에게 상금을 내린다. 관련 기록이 인조실록에도 나타난다.¹⁰²⁾ 승정원일기에는 상을 받은 의관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때 훗날 내의원 도제조로서 이경석과 더불어 허임의 『침구경험방』 간행을 도운 김류(金瑬)도 호피(虎皮) 1필을 상으로 받았다.¹⁰³⁾ 이경석도 이때 조정에서 중책을 맞고 있었다.

침의 정대봉과 안효남은 어의 신득일과 나란히 반숙마 한필을 하사받았다. 그런데 허임은 중급 정도의 표피 1령만을 받는다. 그리고 순서도 이영남·이회한·이락 다음에 허임이 기록되어 있다. 침의 중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로 이름이 쓰여 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허임의 서열이 밀려난 것이다. 그 후 허임은 승정일기에도 1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1639년(인조 17) 8월 12일 승정원일기에 허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임금이 식은땀을 흘리는데 낮지를 양자 내의원 도제조 최명길의 “허임이 청한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허임을 소개했다. 그가 “허임의 의술이 지금의 의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허임이 늙어서 말을 타고 와서 침을 놓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자 인조는 “병세를 써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는다.¹⁰⁴⁾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8일 허임으로부터 임금의 병에 대한 침구처방이 도착했다.¹⁰⁵⁾ 허임의 침구처방을 받아오자고 의논한 날로부터 6일 뒤이다. 충청도 공주는 당시 서울에서 말을 타고 6일 정도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허임은 늦어도 1628년(인조 6) 이후

98) 『승원원일기』 인조 6년 4월 14일.

99) 『승원원일기』 인조 6년 9월 2일.

100) 『응천일록』 권4, 9월 초3일 “去夜政院啓”

101) 『승원원일기』 인조 6년 8월 26·27일; 9월 2·6·8·10일

102)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0월 기유조.

103) 『승원원일기』 인조 6년(1628년) 10월 22일

104) 『승원원일기』 인조 17년 8월 12일

105) 『승원원일기』 인조 17년 8월 18일

부터는 공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긴 것으로 보인다. 허임이 공주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침구진료 소식은 서울의 내의원 도제조도 알고 있을 정도로 주목되고 있었다.

인조의 청한 증세에 대해 허임이 보낸 처방은 손에 침혈 각 네 곳, 등에 뜸혈 두 곳, 장부에 침혈 중완 한 곳. 그러나 이에 대해 침의 이형익과 반충익 등 당시 의원들은 이것을 동시에 놓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고 중완 한곳의 혈만 놓는다.

허임이라는 이름이 다시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때는 1641년 5월 19일. 내의원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공주에 사는 최우량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웠는데 그 의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기록이다.¹⁰⁶⁾ 최우량은 공주에 사는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허임에게서 침을 배운 그가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재신 중에서 창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침을 놓자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

최우량은 바로 다음날인 5월 20일 오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인 부사용(副司勇)의 관직에 제수됐다.¹⁰⁷⁾ 그 후 최우량은 내의원 침의로 활동하는 기록이 이어진다.¹⁰⁸⁾ 최우량에 대해서는 효종 때인 1656년(효종 7) 7월 14일에도 부사용으로 다시 관직이 제수되는 기록이 있고,¹⁰⁹⁾ 1658년(효종 9) 7월 27일 경외(京外)의 침과 약에 뛰어난 사람들을 초치(招致)하는 문제에 대한 내의원 도제조의 계에도 여러 침의들의 이름과 함께 거명된다.¹¹⁰⁾ 최우량은 산림경제에도 침의(鍼醫)로 거론하는 대목이 있다.¹¹¹⁾

최우량의 본관은 강화인데, 이들 강화최씨의 족보에는 벼슬이 부사과(副司果, 종6품)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우량(1599년~1671년)에 대해 강화최씨 족보를 살펴보면 바로 허임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공주 우성면 내산리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곳 내산리에는 400여년 내려온 동계(洞契)가 있다. 내산리 일대를 ‘뜸밭’이라 불리는 지명을 딴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의 좌목(座目)에도 허임에게 침술을 배운 최우량이 등장한다. 부전대동계에는 19세기 중반까지 허임의 후손 총 28명과 최우량의 후손 강화최씨 16명의 기록도 있다.¹¹²⁾ 그리고 바로 허임의 장손들이 대대로 살아왔다는 하양허씨 종손가의 바로

106) 『승원원일기』 인조 19년 5월 19일.

107) 『승원원일기』 인조 19년 5월 20일.

108) 『승원원일기』 인조 21년 10월 15일.

109) 『승원원일기』 효종 7년 7월 14일.

110) 『승원원일기』 효종 9년 7월 27일.

111) 『산림경제』 권3, 구급(救急) 두창 경험방(痘瘡經驗方). “침의(鍼醫) 최우량(崔宇量)이 일찍이 말하기를...”

뒷산에 최우량의 묘소가 있다.

허임은 노년에 바로 이곳 공주 우성면 내산리에 살면서 병자들을 진료하며 후학들에게 침술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허임의 후대 종손가가 살아오던 공주군 우성면 내산리 352번지. 부전골의 가운데에 위치한 허임의 집은 무성산이 병풍처럼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허임은 그곳에서 평생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 『침구경험방』을 집필, 1644년(인조 22년) 당시 내의원 도제도 김류, 춘추관사 이경석, 호남관찰사 목성선의 도움을 받아 판본으로 간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허임의 원래 묘소는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였다. 허임의 묘는 1982년에 부모 묘와 아들 묘가 있는 공주군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으로 이장되었다. 묘를 이장할 때 관 앞에서 조선백자 접시가 나왔다고 한다. 묘지 땅 속의 표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임은 조선실록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군데 묘사되어 있다. 허임의 아버지 묘와 어마니 묘는 공주군 장기면 한천리의 무성산 한켠에 위아래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허임은 불천지위로 모셔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를 기리기 위하여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제사를 지내도 좋다고 나라에서 허락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신위가 ‘불천지위’(不遷之位)이다. 20세기 초반까지는 허임의 불천지위가 공주 허임후손의 종손가 바로 옆 내산리 353번지에 모셔져 있었는데는 것이 후손 허은씨(우성면 내산리)의 증언이다.

8. 맺음말

허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양반사대부가의 문집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록들에서는 왕실과 조정 그리고 사대부와 관련된 일화가

112) 임선빈, 「공주 부전대동계의 성립경과 운영주체」 『백제문화』24,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1990.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일반 가난한 백성들을 진료한 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기록만을 가지고 허임의 생애를 조명해 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허임이 백성들을 구료한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침구경험방』에서 광범하게 찾을 수 있다.

『침구경험방』은 침구이론을 요약하고, 질병별 침뜸치료에 대한 허임자신의 임상경험을 최대한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했다. 모두 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병기, 경혈, 경락, 침구이론(보사법, 금기, 취혈법등), 병증별 침구처방, 침구기법과 시술경험에 대한 언급 등 침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두루 갖춘 침구의서이다. 각론에서는 신체 부위별, 내과·외과·전염병·부인병·어린이병 등 계통별로 나누어 분석·정리하였다.¹¹³⁾ 의약에 관한 단어 중 몇 군데는 한글을 덧붙여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고 있다. 주로 허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편술한 것이고, 뜸을 이용한 치료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병증별 침구치료는 허임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총 43개의 병증문과 그 아래 443개의 작은 항목은 자신이 임상에서 경험했던 환자의 병증이다. 이 항목은 그가 평생 진료한 기록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고, 곧 침구의원으로서 그의 인생이다.

침뜸전성시대의 침구술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허임의 침구법이고, 그 이후의 침구술을 선도 해 나간 책이 허임의 『침구경험방』이다. 이경석은 『침구경험방』의 발문에서 “지금 나라의 재상인 북저 김류가 내국의 도제조를 맡고 있고, 내가 마침 그 아래 있어 이 경험방을 호남관찰사 목성선공에게 부탁하여 간행하게 하였으니, 임금님께서 만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려는 뜻을 받든 것이다. 훗날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며 당시 영의정의 명으로 관찰사까지 동원하여 『침구경험방』을 펴낸다고 밝히고 있다.

허임은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이제는 늙어서 그나마 올바른 법이 전해지지 못할까 근심하고 있다.”며 자신이 세상을 하직한 이후의 환자들 까지도 걱정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궁리해서 구급활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임상경험을 후대 사람들도 널리 활용하기를 기대했다.

113) 朴文鉉, 『許任 鍼灸經驗方研究』, 慶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2002, pp.18~21.

許任 『鍼灸經驗方』의 역사적 이해

－ 治腫醫 전통을 고려한 하나의 提言 －

김 호 (경인교대 교수)

<목 차>

1. 許任 연구 前史
2. 許任의 생애와 治腫敎授 경력
3. 治腫醫와 임언국의 『治腫秘方』
4. 『침구경험방』과 治腫法의 영향
5. 조선후기 許任의 계승
6. 맺음말

1. 許任 연구 前史

증세를 살펴 효과를 거두는 것은 藥餌보다 나은 것이 없다. 허지만 우수마발이라도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마련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물며 金石丹砂의 귀한 약재를 궁벽한 곳에서 어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한번 복용하여 병이 낫기를 기약할 수 없음에랴. 침놓는 것과 뜸뜨는 것은 그렇지 않다. 구비하기가 쉬우면서도 효과는 매우 빠르니 그 처방은 지침 중에서도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¹⁾

1) 『鍼灸經驗方』 <跋文>

『침구경험방』의 발문에서 이경석이 말한 바와 같이 민중들의 약물치료는 약재구득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비해 침구는 매우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대민 의료에서 침구는 약물보다 훨씬 효과가 높았다. 당연히 침구를 널리 보급하려는 정책이 대두되었고 이는 임란이나 호란 등과 같은 전시 상황을 겪은 후라면 더욱 중요해졌다.²⁾

이미 허임에 대한 연구는 일제시대 삼목영(三木榮)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조선의학사 연구의 시발이자 종합이기도 한 대가(大家)답게 허임을 조선 최고의 침의(鍼醫)로 기술하였다.³⁾

許任: 본관 河陽. 宣祖 후반부터 광해군대를 거쳐 인조대까지 鍼醫로 역임한 海東 제일의 鍼家이다. 「經驗方」⁴⁾과 「鍼灸經驗方」(仁祖22년 甲申(1644)에 완성)의 저술이 있고 모두 세상에 널리 활용되었다. 仁祖 말년에 사망하였다.⁵⁾

한편, 『침구경험방』에 대해서도 ‘인조 22년 갑신년(1644)의 저서로 전주(全州)에서 간행되었다. 본서는 처음에 침구(鍼灸) 여러 혈의 요점과 논설을 설명한 후 다음 오장총속증(五臟總屬證)·일신소속장부경(一身所屬臟腑經)·오장육부속병(五臟六腑屬病)·12경초혈(12經抄穴)·침구법(鍼灸法)·별혈(別穴)·절량법(折量法) 등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 각 부위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침구법(鍼灸法)을 수록하고 침구택일(鍼灸擇日)을 기재하였다. 본서는 조선 제일의 침구 전문서로 생각되며 일본에도 전해져 형보(亨保) 10년(1725) 오사카에서 간행되었다.⁶⁾ 또한 사본이지만 후대인이 언해한 책도 존재한다’고 서술했다.⁷⁾

2) 김 호, 2000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김 호, 2001 <16세기 후반 京·鄕의 의료환경,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64.

3) 김 호, 2002 <미카 사카에의 朝鮮醫學史 연구> 『문헌과 해석』 19

4) 규장각 소장본 『經驗方』 <一簣 古 615.135-G998b, 一簣 古 615.135-G998h>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 『藥驗方』이라고도 불렀다.

『頤齋亂藁』 癸卯 4월 19일자

頃日 金君豪叔言 余眼疾看一咸二之證 許任針灸經驗方外別有藥驗方 其爲此證當劑者 曰蔓菁子 罌粟子 胡椒子 南木子 地膚子 公孫子 各二升 青箱子 淸泔 淸酒 淸水 淸油 淸蜜 淸糖 淸酒 淸水 淸油 淸蜜 淸糖

5) 三木榮, 1962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참조.

6) 오사카의 의원 山川淳菴이 享保 10년 大坂에서 간행하였다. 山川淳菴은 얼마동안 조선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의방집술 등을 배웠고, 또한 본서를 획득하여 귀국한 후 大坂에서 개입하여 본서를 간행하였던 것이다.(『朝鮮醫書誌』를 볼 것) 許氏의 이 책은 鍼灸書로서는 당시 조선 제일이었다. 일본판이 간행된 후에는 許氏의 補瀉 방법은 침술을 배우려는 자들이 참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제 3편 6장 3절 『인조 때의 의학』 중의 鍼灸術 참조) 『朝鮮醫書誌』 참조.

삼목영(三木榮)은 허임 침구술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침구학을 정리하면서, 조선초 세종대에 침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이 1438년(세종 20)에 침구 전문의를 매년 3명 채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후 1452년(문종 2) 임원준(任元濬)이 침구를 분과(分科) 전문(專門)으로 설치하여 침과 약을 병용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이에 성종대에 들어와 독립분야로 확립되었다고 서술하고, 본격적으로 침구학이 융성하게 된 선조대에 명의(名醫) 허준(許浚)의 『동의보감』에 「침구편(鍼灸篇)」이 독립적으로 논술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모방에 그쳤고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는데 허임은 ‘보사법’을 통해 조선침구학의 새로운 경지를 마련했다고 보았다.⁸⁾

당시 누구보다도 유명한 이는 허임(許任)으로 조선 침가(鍼家)의 종장(宗長)이었다. 그를 이어 남익(南嶧), 류대명(柳大鳴), 안언길(安彦吉), 이형익(李馨益), 류달(柳達) 등이 있었다. 허임은 선조·광해군·인조대에 걸쳐서 벼슬하였고 만년인 1644년(인조 22)에 「침구경험방」을 저술하였다. 「침구경험방」은 성종대에 전래되어 이용된 명나라 우박(虞博)의 「신응경(神應經)」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지만 조선 의사들의 경험이 혼합된 제일의 침구 전문서로 추정된다.(중략) 보사법(補瀉法)이 이전 『소문(素問)』의 이합진사론(離合眞邪論)이나 『鍼灸甲乙經(鍼灸甲乙經)』의 침도(鍼道)에 보이고 있고 이후 여러 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허임의 보사법은 그의 손기술 및 침 사용의 개량을 통해 보다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⁹⁾

삼목영(三木榮)은 허임의 침구(鍼灸) 보사법(補瀉法)을 중요한 의의로 꼽고 이를 통해 ‘조선의 독자적인 침구학’이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후 허임에 관한 연구는 삼목영(三木榮)의 연구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 박문현은 보다 침구학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토대로 『침구경험방』의 의의를 연구한 바 있다. 유헤의 정리, 부정확한 취혈(取穴)의 조정, 장부병기에 근거한 치료, 새로운 치료혈에 대한 모색 등의 발전 이외에 『기효양방(奇效良方)』의 수법(手法)을 변용 발전시킨 침보사법(鍼補瀉法)의 활용과 다양한 침뜸법의 활용 등이 『침구경험방』의 장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동의보감』 침구편과 『침구경험방』을 ‘침구이론과

7) 최근 언해본은 남권희 교수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일본판의 경우 교토대학 의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8) 三木榮 1962 앞의 책 참조.

9) 위의 책.

침구임상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조선후기의 『산림경제』와 같은 민중 의료에 끼친 영향과 일본과 중국 청(淸)에 미친 영향을 고증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침구경험방』 연구의 진일보를 가져왔다.¹⁰⁾

그후 이상창(李相昌)은 2004년의 박사 논문¹¹⁾에서 『침구경험방』의 의의 가운데 자락방혈(刺絡放血)과 자락(刺絡) 이후의 부항(敷缸;附缸)을 이용한 출혈 방법을 독특한 특징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현대 의학의 차원에서도 자락(刺絡) 방혈(放血)의 치료법이 열성(熱性)疫病(疫病)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¹²⁾ 물론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자락과 방혈에 주목한 것은 허임 의학의 중요한 부분을 포착한 것이었다.

이밖에 2006년에는 본 허임기념사업회의 활동과 함께 치러진 <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기획 전시회를 통해 허임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졌다. 허임의 묘소가 충청도 공주에 있다는 사실과 공주의 유명한 침의(鍼醫) 최우량이 허임에게 침술을 배웠으며, 현재에도 허임의 후손들이 공주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고 있음을 밝혀냈다.¹³⁾

이와같이 일제시대 삼목영(三木榮)이 시작한 허임 연구는 수 십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논문들로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와 한의학적 의의 등은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허임의 출생과 활동에 대한 약간의 고정(考訂) 자료를 보충하고, 이를 통해 허임 의학의 연원 및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조선의학사상 침구와 함께 중요한 한 분야였던 치종(治腫) 의학을 고려하면서 허임 의학의 한 측면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허임 의학의 연원을 살피고, 다른 한편 허임 의학이 후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10) 박문현, 2002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1) 이상창, 2004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上海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12) 위의 책 pp.39-42

13) 허임기념사업회, 2006 『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 (허임기념사업회 간행). 참조

2. 허임의 생애와 治腫敎授 경력

이미 허임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들에 자세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정리하면서 허임 의학의 새로운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허임의 부모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허임은 『조선왕조실록』의 다음 기사들에 의해 악공 허억봉과 사비(私婢)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富平府使 許任이 辭朝하였다. 대개 상이 침을 맞은 뒤에,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史論: 허임은 樂工 許億福의 아들이다. 침술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2품의 관직에 뛰어올랐다]¹⁴⁾

1-2) 許任을 특별히 제수하여 南陽府使로 삼았다.[허임은 악공 許億逢의 아들인데, 난리때에 사사로이 덕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¹⁵⁾

1-3) 楊州牧使 許任은 아버지는 官奴이고 어머니는 私婢로, 비천한 자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針術로 출신하여 녹훈되고 封君되기까지 하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친 것으로, 국가에서 공로에 보답함이 너무 지극한 것입니다.¹⁶⁾

세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허임의 출신을 알 수 있었다. 허억봉은 당대 최고의 피리꾼이었으며, 만년에는 현금(玄琴)에도 능했던 만능 음악인이었다.¹⁷⁾ 이미 당대에 음악으로 일세를 풍미하던 인물이었던 것이다.¹⁸⁾

그런데 16세기 후반 17세기 초 학자였던 민인백(閔仁伯, 1552~1626)의 문집인 『태천집(苔泉集)』에는 허임의 부모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1-4) 許任의 아버지는 襄陽의 官奴이다. 그 어머니는 領相 金貴榮 집안의 私婢이다. 針術을

14)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1617) 6월 21일(갑인)

15) 『광해군일기』 광해군 14년(1622) 4월 6일(신미)

16)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2월 18일(계축)

17) 『惺所覆瓿稿』 권24 說部3 <歷代樂工>. 余少日及見大平文物 其樂工有許億鳳工笛 晚年移玄琴亦好

18) 『琴譜』 <琴譜序>. 使許億鳳爲笛譜 (中略) 許李二工 以笛瓛 鳴於世者也 (潤松美術館 所藏本)

익혀 자못 효과를 보았다. 광해군이 동궁시절부터 모시다가 즉위한 이후에 침으로 큰 벼슬에 올라 심지어 封君되기까지 했으니 매우 참람한 일이다. 아버지 億鳳은 右議政府院君에 추증되고 어미 또한 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¹⁹⁾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때, 허임의 아버지 허억봉은 강원도 양양의 관노(官奴)로 있던 중 피리를 잘 부는 덕에 왕실 행사에 악공(樂工)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장악원(掌樂院) 소속의 악공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정승 김귀영(金貴榮) 가의 사비와 혼인하여 허임을 낳았다.²⁰⁾

‘봉군(封君)’이라 함은 허임이 선조 임금을 모시고 임란을 피해 의주로 다녀왔을 때 호성(扈聖)의 공로를 인정받아 군호(君號)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허억봉은 우의정부원군(右議政府院君)으로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되었던 것이다.²¹⁾

한편, 오희문의 『쇄미록(鎖尾錄)』에는 임란 당시의 허임의 활동상이 자세하다.

19) 『苔泉集』 권5 記聞 多光海時事. <許任官奴之子而至於封君>.

許任之父 襄陽官奴也 其母 金相貴榮家私婢也 學針術 頗見效 光海在東宮時 爲其幹僕 乃卽位之後 鑽刺錄勳 至於封君 已極奸濫 而其父億鳳 贈右議政府院君 其母私婢 亦封貞敬夫人 朝廷爵命 豈非汚辱之甚乎

20) 『藥峯遺稿』 권2 <平海郡逢舊樂師許弄-五言古詩>

吾兄名億鳳 以笛隨乘輿 十年爲典樂 進退隨鴻臚 少小習耳目 樂其可知歟 十二仍學箏 鯤絃飾環 哀音啖孤鶴 16세기 문인 徐潛이 허억봉의 동생 허봉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다. 허억봉은 어려서부터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음악을 익혔다. 그러던 중 왕실 행차의 樂工으로 차출되어 행차에 악대로 따라 다닌지 10년 여에 典樂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21) 1613년(광해군5)에 崔興遠을 衛聖功臣 1등에 명하는 국왕의 敎書에서 3등에 오른 허임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敎書』 (서울대 규장각) <古 貴 軸 951.052 -W755> 참조)

한편, 李純仁(1533년~1592년)의 문집에도 당시 녹훈된 기록과 賞勳이 적혀있다. 당시 허임은 자급이 올랐을 뿐 아니라 노비3구, 전지20결, 은자5냥, 내구마 1필을 하사받았다.

『孤潭逸稿』 卷4 <敎贈竭忠盡誠衛聖功臣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 全陵君 行通政大夫 承政院都承旨 知製敎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李純仁書>.

王若曰 人臣效殉國之誠 莫尙於臨危盡節 朝家有勸忠之典 所貴乎懋賞疇庸 當茅土之疏封 豈存沒之異式 (中略) 肆策勳爲衛聖功臣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有及永世 無子則甥姪女壻加階 仍賜奴婢三口田二十結 銀子五兩表裏一段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賞未官酬 雖闕生前之報 恩由勳錫 庶增身後之光 諒惟泉窆之間 服茲寵光之逮 故茲敎示 想宜知悉 (中略) 三等:李純仁 柳挺立 春溪都正龜 琅城君聖胤 宜城都正孝忠 許潛 柳祖訥 姜璿 尹健 金信元 李應寅 柳淇 崔岵 柳希聃 俞大建 張迥 閔思權 朴宗男 柳夢寅 朴晉 吳百齡 趙應祿 任禮臣 趙國弼 韓守謙 金琢 李尙毅 鄭希玄 張洵 申熟 李公沂 梁子儉 崔潤榮 鄭大吉 朴夢周 朴奉琳 金彦海 李應華 尹鳴殷 李彦慶 金漢傑 鄭禮男 韓應祿 金許龍 金元男 全有馨 金應龍 金忠男 許昕 許任 申應祿 曹興立 韓天斗

1-5) 식사 후에 太守²²⁾를 관청으로 가서 보았으나 시끄러워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만 딸의 병세를 물었더니 아헌[東軒]으로 가서 許教授를 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또 한 침을 맞게 하라고 한다.[7] 이에 즉시 의녀 복지를 불러 그 點穴을 가르쳐 주고 나는 즉시 먼저 돌아오고 복지는 따로오게 했다. 침으로 좌우 손 15여 곳에 놓게 하고 저녁을 먹여 보냈다. 소위 허교수는 이름이 任이니 침술을 배워서 治腫教授가 되었다고 한다[나]. 그 아버지는 典樂 허억봉이다. 임은 처신하기를 양반같이 해서 태수의 자제들까지도 역시 양반으로 그를 대접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로揖하고 들어가서 마주 앉아 존칭을 쓰는데 조금도 사양하는 빛이 없더니 물러나와 복지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억봉의 아들임을 알았다. 너무 지나치고 몹시 분하다. 억봉은 피리를 잘 불어서 나도 평일에 역시 南尙文의 집에서 피리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다. 남상문은 매번 그를 불러다가 피리를 들었는데 이제 賓主의 예를 행하고揖讓하고 堂에 올라서 마치 나와 대등한 사람처럼 대했으니 욕을 당한 것이 가볍지 않다. 더욱 분하다. 다만 또한 태수의 대접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른 때문이다. 또 지난번에 어머니를 위해서 獻壽할 때 억봉이 典樂으로 妓工을 데리고 남상문의 집에서 와서 학춤을 추었는데 당시 손수 박달나무 판을 들고서 여러 妓工의 앞에 서서 公庭에서 훨훨 춤을 추었으니 그 아들의 사람됨을 알만하다. 생각건대 난리를 치른 후에 軍功으로서 東班의 직함을 제수 받은지 모르겠다.²³⁾

[7]의 내용을 읽어보면 태수 박춘무(朴春茂)가 딸의 병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오희문에게 차라리 허교수(許教授 ; 허임)를 찾아가 물어보고 침을 맞으라고 한 사실을 알 수

22) 당시 太守는 박춘무로 그도 鍼醫 출신으로 사포가 된 자였다.

23) 『鎖尾錄』 丙申(1596년) 十一月大 初三日冬至 十八日小寒 初一日.

去夜雨雪 朝起視之 屋瓦盡白 風色甚冽 無柴埃冷 家有病兒 顧無作籬之路 窮困亦迫 可歎奈何 端兒如前若痛 小無向歇之勢 達夜呻吟 極悶極悶 食後就見太守[朴春茂] 於官廳 因擾不得穩叙 只問女息病訂 則答曰 受鍼宜當 因使我入見許教授於衙軒問之云 卽進衙 見太守子弟 而許教授亦在座 問其病訂 亦曰鍼破云 卽招醫女福之 教其點穴處 余卽先還 福之隨來 鍼破其左 右手足並十五餘穴 饋夕飯而送 且所謂許教授者其名任 學鍼術 爲治腫教授云 其父乃典樂許億鳳 而任也處身如兩班 太守子弟等 亦待以兩班 比肩而坐 余不知其然 相揖而入 對坐而尊稱 少無讓色 退而問福之後 始知億鳳之子 可謂過甚而痛憤 億鳳以善吹簫鳴 皆余平日亦聽其簫聲於南高城[尙文]家 南也每招而聽笛 今行賓主之禮 揖讓登堂 正如敵已之人 受辱非輕 尤極痛甚 但亦不知太守之待之過也 又於曩日 爲母主獻壽時 億鳳以典樂 率妓工 來高城家舞鶴 時手執檀板 率先諸工 翱翔萬舞於公庭 其子之爲人可知矣 意必亂離後 以軍功授東班職耶

있다. 당시 박춘무 역시 침의(鍼醫) 출신의 사또[林川郡守]였다.²⁴⁾ 물론 사또가 직접 나서서 치료하기 보다는 허임에게 미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허교수를 추천한 것을 보면 이미 허임의 의술이 매우 높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허임의 직책이 ‘치종교수(治腫敎授)’였다는 점이다.

치종의(治腫醫)는 침구의(鍼灸醫)와는 또 다른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조선초기부터 침구술에 능한 의사들이 종기를 침으로 찔러 치료하는 일이 간혹 있었지만 종기 치료만을 전문으로 담당한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악창(惡瘡)이나 종기가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종기를 비롯한 다양한 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점차 종기 치료 즉 치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치종의(治腫醫)라고 불렸던 것이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을 보면 의서에 능하지 않더라도 종기를 잘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악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채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치종의 제도를 마련한 최초의 법전 규정이었다. 이후 1543년에 간행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는 치종의(治腫醫) 1명을 둔다는 규정이 이어진 것을 보면 『경국대전』 이후 치종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치종의와 함께 치종청(治腫廳)이라는 독립 기관 역시 중종대에는 확실히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치폐를 거듭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렀다. 치종의(治腫醫)는 전의감과 혜민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치종교수(治腫敎授) 직을 담당하고 있었다.²⁶⁾

24) 『선조실록』 선조 30년 정유(1597) 4월 21일(신사)

이날 내의원에서는 침술이 능한 林川郡守 朴春茂를 경기도 사또로 제수하여 왕실의 鍼灸 시술에 편의를 도모하자는 건의를 올린바 있다.

25) 三木榮, 1962 앞의 책,

治腫을 전문으로 할 필요성은 「乙巳經國大典」禮典 獎勵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찍부터 인식되었고, 중종 때 「大典後續錄」兵典 遞兒條에 治腫醫員이라는 직명이 보인다. 따라서 治腫廳은 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중종무렵 전의감에 부속되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것이 어느 사이엔가 폐지되었다가 선조 말년에 復設되어 직관을 정비하였다고 실록에 보인다. 그러나 또 復設 이후 어떤 경위를 거쳐 존속되었는지 자세하지는 않다. 다만 영조때 「續大典」중에 惠民署 治腫이라는 직명이 기재되고 있으므로「續大典」兵典 五衛 중에 副司果 中6품 惠民署治腫 1명·副司勇 中9품 惠民署治腫 1명으로 되어있다)

26)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官職典故> [諸司] 전의감 條 참조.

치종청은 선조37(혹은 36)년 설치되었다. 후일 전의감에 병합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동국여지비고> [京都] 전의감 조 참조.

典醫監: 중부 堅平坊에 있다. 개국 초에 설치했다. 대궐 안에서 쓰는 醫藥을 바치고 신하에게 약을 내려 주었다. 선조 36년에 治腫廳을 다시 설치하였다가 후에 本監에 합쳤다.

조선시대 의학교수(醫學教授)는 조선초부터 도(道) 단위에 설치된 의원(醫院)에 파견되어 지방의 유생들 가운데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의업을 가르치도록 했다.²⁷⁾ 교수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외방 의생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²⁸⁾

이로 볼때 허임 역시 당시 치종교수로 재직하던 중 임천군에 머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허임을 침구의료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1596년 당시 허임은 치종의로써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치종이었다면 그가 참고하고 배웠을 의서들은 조선전기 임언국의 『치腫秘方』과 같은 의서류였음이 분명하다.

3. 治腫醫와 임언국의 『治腫秘方』

중종대 명성이 자자했던 치종의로 김순몽(金順蒙)이 있었다. 그는 의학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치종에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뒤이어 16세기에 활약한 김수량 역시 특별한 종기 치료술로 유명하였다. 그는 칼로 종기를 도려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안분당 이희보가 다리에 혹이 자라더니 처음에 개암이나 밤톨만하다가 점차 커져 격구(擊毬)하는 공 정도로 자라게 되었다. 앉거나 말 탈 때 매우 불편하였는데 이를 김수량이 신기하게도 칼로 도려내 깨끗하게 치료한 것이다. 김수량은 의서를 공부하지 않고 기술을 자득하여 어떤 악창(惡瘡)이라도 모두 치료하여 양반·문인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였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임언국(任彦國)이야말로 조선 치종학의 수준을 오늘날의 외과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양시킨 대표적인 의사였다. 중종대에서 명종대에 걸쳐 활동한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여 종기 치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당시 그가 행한 종기 치료술은 후일 비

27) 태조 2년 계유 1월 全羅道安廉使 金希善의 건의로, 외방에는 의업에 통달한 자가 없기 때문에, 醫學教授 1명을 파견하여 각 지역 최고 관부에 醫院 하나를 두고, 양반자제를 선발하여 生徒로 삼고, 지식이 있고 근후한 자를 뽑아 정해서 敎導로 삼았다. 「鄕藥惠民經驗方」을 강습하게 하고 敎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의원에 약물을 캐는 사람[採藥丁夫]을 배속시켜 약재를 채취하고 처방에 따라 제조하여 병자를 구제하고 치료하도록 했다.(三木榮, 1962 앞의 책 참조)

28) 『大典續錄』 禮典 [獎勵]條 참조.

29) 『大東野乘』 稗官雜記 제2권(魚叔權)

약적으로 발전하여 치종학 분야가 전문화하는데 한 몫 하였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치종학은 치종청(治腫廳) 같은 새로운 의학 관청을 설립하는 데로 이어졌다. 임언국의 치종술은 소독과 외과 수술을 동원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종비방(治腫秘方)』에 자세하다.

임언국의 고향은 전라도 정읍으로 누대로 그곳에서 살아온 유학자였다. 그의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워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백약이 무효하자 영은사라는 절의 한 노스님에게 침술을 전수받아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게 되었다. 그 후 스스로 묘법을 터득하여 종기 이외에 다른 질병들도 치료하는데 힘썼다. 한번은 이웃을 지나는데 사람이 죽어 염을 하려고 준비하였다. 이에 임언국이 침을 놓아 소생시키기도 했다. 조정에서 소식을 듣고 서울로 불러서 특별히 의복을 하사하고 관직을 제수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언국은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진 상태라 병조에서 군직을 붙여 관직에 서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도 9품의 낮은 직위였다. 임언국이 이를 마다하지는 않았으나 월급이 너무 적어 이를 가지고는 서울에 머물 수가 없었다. 이에 신하들은 임언국을 전의감의 치종교수직에 소속시켜 적당한 월급과 자품을 마련해 주고 서울에 오래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치료하고 한편으로는 가르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그의 전의감 의학교수직 수락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마지막으로 종6품의 예빈시(禮賓寺) 주부(主簿)로 관직 생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그가 살린 사람은 만 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³⁰⁾

사실 임언국의 치종기술을 수록한 <치종비방>은 널리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라도 관찰사로 취임한 안위(安瑋)가 이를 구해보고 실용적인 처방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도 금산군수 이억상에게 부탁, 1559년(명종14)에 출판함으로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³¹⁾

『치종방』에서 임언국은 종기를 다섯 가지³²⁾로 분류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에 일종의 등창 치료를 위한 절개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침술과는 달리 다양한 메스를 이용한 획기적인 외과 수술법이였다.

특히 그의 치료법을 보면 종기 부위를 침으로 찔러 피고름을 빨아낸 후 소금물이나 토

30) 『治腫秘方』 <序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참조.

31) 현재 이 책은 일본의 宮内廳 서릉부에 보관 중이며, 필사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전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아사미 문고에도 소장되어 있다.

32) 火丁, 石丁, 水丁, 麻丁, 縷丁의 다섯가지다.

란고(土卵膏) 등을 붙여 독기를 빨아내는 방법이었다. 가령 얼굴에 생긴 경우 종기가 있는 해당 부위와 백화·척택혈에 침을 놓아 독을 빼고, 소금물로 종기 부위를 닦아내 열기를 가라앉힌 후에 토란고를 붙이도록 했다.

임언국의 등창 절개 기술은 치종이가 침구와 함께 외과 수술과 같은 기법을 사용했음을 잘 보여준다. 『치종방』 말미에 붙어 있는 이 방법은 오늘날의 외과 수술에 해당할 만한 기술이었다. 처음에는 종기 부위에 토란고를 붙이고 척택혈에 침을 놓는 정도로 치료한다. 그러나 낫지 않고 2, 3일이 지나면서 종기가 커지면 침으로 찔러 종기의 뿌리를 제거한 후 토란고를 붙이고 다시 척택혈에 침을 놓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4~5일이 지나면서 배만큼 커지면 침을 사용하여 절개하고 제거하도록 권장하였다.

절개하는 방법은 먼저 종기의 크고 작음 깊고 얇음을 살핀 후 사방을 정하여, 우선 종기의 오른쪽 위로부터 좌측 아래까지 칼로 절개한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에 이르도록 대각선으로 절개한다. 일종의 메스 형태인 침으로 십자 모양으로 절개하여 나쁜 피를 뽑아낸다. 종기의 독기가 얇으면 절개를 얇게 하고, 깊으면 깊이 절개한다.

임언국이 수술에 사용한 침은 그저 단순한 침이 아니라 일종의 수술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령 농침(膿鍼)은 피부를 절개하기 위한 칼 모양이며, 곡침(曲鍼)은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긁어내는 도구였다.

한편 침구명에서 피가 그친 후에는 단지(丹地)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단지구(丹地灸)’라고 하여 일종의 유화수은³³⁾을 면에 싸서 종기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땀을 뜨는데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열을 가하여 피를 멈추게 하는 동시에 소독의 효과를 취하였다. 이를 서너 번하면 종기의 악즙(惡汁)이 모두 빠져나와 통증이 멈춘다고 보았다.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금물을 끓여 식힌 것을 계속 부어 주는데 종기가 꾸덕꾸덕 마른 후에는 족제비 고기를 불에 태운 재를 종기의 구멍에 채워 넣은 후 참기름으로 주위를 닦아내었다.

당시 학자이자 관리였던 어숙권(魚叔權)은 언젠가 임언국의 종기 치료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임언국은 항상 종기를 치료하는데 침과 칼을 사용하여 절개하거나 긁어낸 후 반드시 앵무새 고기를 불에 태운 재를 종기 구멍에 발라주었다. 이상하게 여긴 어숙권이 그

33) 鏡面朱砂로 수은과 유황을 섞어 만든 검은 화합물이다.

이유를 묻자 임언국은 한 동네에 살던 마의(馬醫)가 말의 종기를 치료한 후에 항상 앵무새 고기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발라주었는데 매우 효과가 크므로 자신이 사람에게 적용하였는데 역시 효과가 크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동물에게 처치한 다양한 방법들을 인간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용한 의사였다. 후일 임언국은 앵무새 대신 족제비를 불에 태운 재로 종기의 구멍을 지혈하였다.

임언국의 종기치료술이 경락과 혈에 침을 놓는 방법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종기를 절개하고 피를 내어 고름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법이었다. 등에 난 종기를 십자형으로 절개하고 소금물로 소독하고 지혈을 위해 재를 이용하는 수술 기법은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 임언국의 치종법을 일본에 소개한 한 의사는 침이 아닌 메스로 종기를 절개하는 방법을 보고 ‘피를 뽑아내는 신기(神技)’라고 감탄하였다.³⁴⁾

4. 『鍼灸經驗方』과 治腫法の 영향

앞서 장황하게 여러 치종과의 함께 임언국의 『치종방』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허임 의술의 근원을 살피기 위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함이었다. 허임은 자신의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평소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편집하여 (중략) 옛 사람들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고, 다만 내 일생 동안의 고심의 결정’³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바로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손으로 시험해 본 것’³⁶⁾들이다.

조선 치종과의 후예로서 임언국의 치종비방과 같은[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손으로 실험해 본] 치종청(治腫廳)의 지식들이 침구(鍼灸)와 결합함으로써 『침구경험방』의 독특한 의술 세계가 탄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34) 이는 당대 명나라의 의사 薛己의 『外科樞要』나 이보다 뒤에 나온 외과 전문 의서인 陳實功의 『外科正宗』을 능가하는 종기치료법이었다.(三木榮, 앞의 책 참조)

35) 『鍼灸經驗方』 <序文>. 及今衰老 仍恐正法之不傳 乃將平素聞見 粗加編次 (中略) 非敢自擬於古人著述 只爲一生苦心

36) 『鍼灸經驗方』 <跋文>.

허임은 이미 당대에 방혈(放血)의 기법으로 유명했다.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종기를 치료한 그의 명성은 이미 양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지은 이경석도 형님의 종기를 허임의 의술로 치료한 경험이 있었다. 형 이경설의 넓적다리 종기 치료차 아버지 이유간의 명으로 허임을 모셔온 것이다.

2-1) 아들 경설이 어제부터 좌측 다리가 아파 잠을 못자므로 경석[이경석]이 허임을 만나 針을 놓아달라고 요청하였다. 넓적다리의 피고름이 흐르는데 서너 사발을 쏟아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육싯 육싯하면서 아프더니 이미 종기가 되었는데 서울에 들어간 후 여러 의사들이 와서 보았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허임만이 홀로 종기를 알고 치료하였으니 과연 名不虛得이었다.³⁷⁾

허임의 침술 역시 종기를 찌고 방혈하는 방법으로 널리 유명하였다. 이는 그의 『침구경험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2-2) 瘡腫: 癰, 疽, 疔, 癰이 처음 생겼을 때 경락 부분을 잘 살펴 각각 경락을 따라 침을 놓는데 날마다 놓아야 한다. 혹 거르면 효과가 없으니 (중략) 연이어 10일을 침맞는 고통이 죽거나 매우 괴로운 것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쪽이 무겁겠는가?³⁸⁾

허임은 매일 침을 놓는 고통을 참는 편이 죽는 것보다는 낫은 법이니 매일 침을 놓아 邪氣를 배출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한편, [털의 경계에 난 종기, 입술에 난 종기,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과 [背腫]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두꺼비 고기를 먹는 일과 大鍼으로 찌서 고름을 빼내는 방법³⁹⁾은 『치종방』의 그것과 동일하다.⁴⁰⁾

37) 『愚谷日記』 戊午(1618) 4月 14日

晴 高自去夜不能寢 左脚之痛如新 輒往見許任 請來受針 髀髁膏血流下幾三四鉢 前年十月引布苦痛者 已爲成腫之候也 而入京之後 諸醫來見 而皆不知其成腫 許任獨能知之 果可謂名不虛得也.

[『우곡일기』는 李惟侃(1550~1634)이 1609년(光海君 1)부터 1618년(光海君 10)까지 쓴 일기다. 이유간은 定宗의 아들인 德泉君 厚生의 5 세손이다. 李恒福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 돈녕부도정 등을 역임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로 치사하였다. 아들 白軒 李景奭(1595~1671)으로 인해 大匡輔國 崇祿大夫에 추증되었다.]

38) 『鍼灸經驗方』 <瘡腫> 참조

39) 上同

40)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임언국의 『治腫秘方』과 『鍼灸經驗方』을 비교한 後稿를 준비 중이다.

2-3) 肺癰: 즉시 날선 대침으로 아픈 가장자리를 찔러서 터뜨리는데 젖가슴 옆 겨드랑이 아래에서 갈비뼈 사이를 향해 찔러 고름이 나오도록 하고 즉시 비벼 꼬은 종이를 끼워 넣고 빼기를 날마다 행해서 구멍이 막히지 않게 한다.(중략)

2-4) 陰腫 혹 臀腫~ : 위험해지기 전에 칼날이 선 大鍼으로 먼저 피부를 절개하고 점점 깊이 찌면서 굵은 곳에 이르러 침봉이 쉽게 들어가 허공에 빠진 듯 하면 이미 굵은 데에 도달한 것이다. 이후 針鋒을 들어 찢어 터뜨리고 침을 빼서 고름이 나오게 한다. 굵은 것이 멈추면 비벼꼬은 종이를 침구멍에 집어 넣어 구멍이 막히지 않게 한다.(중략)

이와같은 절개 방법으로 혈농(血膿)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치종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⁴¹⁾ 허임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다양한 약물을 활용 침으로 방혈한 이후 항구(缸灸)하는 방법을 발달시켰다고 할 수 있다.⁴²⁾

치종의 전통을 이어받아 조선 침구의학의 발달시킨 허임의 독자성은 조선후기 의학에서 허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요컨대 허임의 치료법 가운데 방혈의 기술을 응용한 종기 치료술, 그리고 침을 놓은 후 항구하는 응용기술이 널리 활용된 것이다.

다음은 조선후기 의서 혹은 생활일용서(生活日用書)에서 『침구경험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그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단편적이거나 자료에 근거하여 고증하기로 한다.

5. 조선후기 許任의 계승

기왕의 논고들에서도 이미 허임의 『침구경험방』이 조선후기 다양한 의서나 생활서적에

41) 물론 필자가 허임을 치종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뛰어난 鍼灸醫로 활약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임의 독특한 放血, 缸灸 등의 기법이야말로 조선 치종의학의 전통 위에서 살펴볼 때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2)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한다.

이용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⁴³⁾ 그러나 단순히 처방들을 초출(初出)하여 나열한데 불과하여 치종(治腫)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조선후기 의서 혹은 일용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침구경험방』의 처방들을 보면 대개 침구 외에 옹저(癰疽)와 적취(積聚), 하마온(蝦蟆瘟) 등 ‘방혈(放血)’의 기법이 활용된 부분들이 상당하다.

18세기 후반 널리 활용되었던 『광제비급(廣濟秘笈)』은 『허임경험방』이 중국의 『신응경』을 표절하였다고 폄하하였지만⁴⁴⁾ 실제 인용한 『침구경험방』의 내용은 침술보다는 방혈의 기술이 응용된 허임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3-1) 전쟁 후에 살기가 침범하여 사람을 상한 것인데 한열이 반복하며 두통과 얼굴이 부으며 턱밑이 무지개나 두꺼비피름 되는 것인데 陽經, 合谷, 尺澤, 小商, 中渚, 外關, 間使, 天窓, 地窓, 迎香, 太陽穴을 침으로 놓아 나쁜 피를 많이 빼낸다. 대두온의 치료법을 참작한다.⁴⁵⁾

3-2) 肝癰은 箕門穴이 은근히 아프면서 약간 불룩하다. 만일 터지지 않았다면 馬刀挾癰이라 하여 침으로 터뜨리고[許任方] 柴胡清肝湯을 사용한다.⁴⁶⁾

먼저 하마온(蝦蟆瘟)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허임의 ‘다출악혈(多出惡血)’의 기술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어 간옹(肝癰)을 치료하는 허임의 ‘침과(鍼破)’ 기술 등 방혈이 응용되어 있다. 한편, 뜸을 이용한 치료법은 타박상과 적취에 활용하였다.

3-3) 타박상으로 가슴 속에 어혈이 있는 경우 巨闕에 50壯, 三里에 49壯, 膈俞에 100壯을 뜨고 또 天應穴을 잡아 쑥기운[艾氣]을 많이 쏘인다.⁴⁷⁾

43) 박문현, 앞의 논문 pp.75-77, 『산림경제』에 활용된 방법들을 상세히 논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44) 『廣濟秘笈』 권1 <引據諸書>. 許任方 一卷 剽竊神應經者也

45) 『廣濟秘笈』 권1 <七竅病·耳目口鼻 大頭瘟>. 蝦蟆瘟者 兵亂之餘 殺氣觸犯傷人 寒熱頭痛頭面腫大 頷下有虹蜺蝦蟆之狀 針刺諸陽經·合谷·尺澤·小商·中渚·外關·間使·天窓·地窓·迎香·太陽穴 多出惡血 與大頭瘟照治[許任]

46) 『廣濟秘笈』 권1 <癰疽 肝癰>. 肝癰 箕門穴隱隱而痛 微起者 是穴在腋下乳傍 若堅而不潰 名馬刀挾癰 針破之[見許任方] 用柴胡清肝湯方

47) 『廣濟秘笈』 권1 <諸傷 打撲>. 胸中瘀血 巨闕五十壯·三里七七壯·膈俞百壯 又取天應穴 多入艾氣[許任]

3-4) 冷積이면 關元·氣海에 5~60壯을 뜬다[許任] 또한 中脘에 500壯과 三리에 49壯, 痞根穴에 100壯을 뜬다.⁴⁸⁾

『의취(宜集)』에도 허임방이 소개되어 있는데 역시 <옹저(癰疽)>를 치료하는 법과 노인 급사에 땀을 뜨는 방법이 인용되어 있다.⁴⁹⁾

한편, 1712년 5월 숙종의 팔에 통증을 느껴 침구를 시술하는 문제로 여러 대신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허임 의술의 독창성에 대한 숙종과 당시 대신들의 의논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3-5) (숙종이 말하기를) 缸灸는 본래 古法이 아니다. 대개 東醫 許任의 『經驗方』에서 나온 것인데 鍼刺한 이후에 缸灸를 붙여 피를 뽑는 것이다. 그 효과가 매우 빠르다고 한다. 비록 침을 많이 맞지 않아도 약간만 피부를 열어 소통한 다음에 缸灸를 붙이면 좋다고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말한다면 침을 약간만 놓는다고 해도 약간의 피를 뽑게 되므로 미안한 일이지는 하다. 이에 金演은 小臣 역시 지난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침을 놓은 후 缸灸를 붙인 적이 있는데 氣를 당기는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아뢰었다.⁵⁰⁾

이미 숙종은 침자(針刺) 후 항구(缸灸)로 방혈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가 빠른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허임의 독특한 기법임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허임은 조선후기에 침자와 방혈의 방법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의원들 역시 삼릉침(三稜針)으로 절개한 후 방혈을 권하고 있었다. 이미 여항(閭巷)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고 진언한 것이다.⁵¹⁾

48) 『廣濟秘笈』 권2 <雜病 積聚>. 冷積 灸關元·氣海五六百壯[許任] 又灸中脘五百壯 三里七七壯 痞根穴在十三頤下兩旁各三寸半 灸百壯

49) 『宜集』 권3 <癰疽>. 腫出手部癰疽穴足部生腫灸足部癰疽穴取其病邊限差灸之上穴法 在許任經驗方 ; 宜集 麻疹經驗 救急. 老人行房卒死人參煎灌口卽活[人中及兩足大拇指離甲韭 許各灸七壯]許任 老人行房不勝氣寒慎勿放脚抱住使煖氣相通吹氣入口鼻卽甦]

50) 『承政院日記』 숙종38년(1712) 5월 17일 (기해)
缸灸 本非古法 蓋出於東醫許任經驗方 而鍼刺後付之 其效最捷云 雖不大段下鍼 略開皮膚 疏通然後付之 似好 而且以慎重之道言之 則雖云略鍼 猶損一分血液 此爲未安矣 金演曰 小臣 亦於頃者 略施同鍼後 灸之 則引氣最緊 頗覺有效矣 先令鍼醫診察 各陳所見 何如 上曰 依爲之

한편, 허임의 침구술은 여러 제자들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1725년 일본에서 『침구경험방』을 간행한 산천순암(山川淳菴)은 일본판 서문에서 조선의 침구술이 매우 뛰어나며 그 방법들이 모두 허임의 기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⁵²⁾

알려진 바와 같이 공주의 침의 최우량은 허임에게 의술을 전수받아 명의로 유명하였다.⁵³⁾ 인조대 최우량은 부사용(副司勇)의 직책을 부여받은 후⁵⁴⁾ 잠시 내의원 침의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후 효종대에도 외방에 있던 최우량을 부사용의 직임을 주어 침의로 불러왔었다.⁵⁶⁾

이밖에 최유태와 오정화는 허임의 의술을 전수받아 더욱 그 명성이 뛰어난 후배 의사들이었다.⁵⁷⁾ 최유태(崔有泰)는 『태의원선생안(太醫院先生案)』에 의하면 청주가 본관으로 효종 신묘년에 의과에 합격하였다. 그 역시 치종교수(治腫敎授)를 역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⁵⁸⁾ 이 집안은 『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을 분석해보면 대대로 침의(鍼醫)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허임의 침법을 전수받은 후 집안이 대대로 침의(鍼醫)로 활동하고 또 산과(算科) 출신의 계사(計士)들과 혼인을 통해 중인 집안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오정화(吳鼎和) 역시 허임에게 의술을 전수받아 주로 치종교수(治腫敎授)로 활약했다.⁵⁹⁾ 이렇게 허임 의학은 제자들을 통해 ‘치종(治腫)’ 전통을 조선후기로 이어졌다.

51) 上同

孝綱曰 經驗方 既曰鍼灸後 宜付鍼灸 卽今閭閻 依此得效者亦多 略爲受鍼後 受灸 似好矣

52) 『鍼灸經驗方』 <序文> (허임기념사업회 해설 및 번역, 『鍼灸經驗方』 참조)

53) 『承政院日記』 인조19년(1641) 5월 19일(계사)

李省身 以內醫院言啓曰 公州居幼學崔宇量 學鍼於許任 深得其精妙數字缺里稱善云 近日因事上京 有宰臣 脹證之甚 □□□□施鍼輒效 所患良已 其於本業似非尋常

54) 『承政院日記』 인조19년(1641) 5월 20일 (갑오): 洪起源·崔宇量爲副司勇

55) 『承政院日記』 인조21년(1643) 10월 15일 (을해): 別入直鍼醫臣崔宇量

56) 『承政院日記』 효종7년(1656) 7월 14일 (경신): 崔宇量爲副司勇

『承政院日記』 효종9년(1658) 7월 27일(임술)

李祉述·李馨益·柳夔·崔胤積·李光俊·金光淵·柳篋·崔宇量·朴由淵等 俱在外方 行文該道監司 題給刷馬 使之 罔夜上送之意 敢啓 傳曰尹善道·李元鎮 皆有疾病 勿爲招致 且憲府之啓 不過循例允從而已 別無他意也 如此濫雜之類 勿爲招致 以惹傍人之笑 十分愼重爲之

57) 『及幼方』 권7 <癖積> 肅廟朝 太醫知事崔公有泰 別提吳公鼎和 皆得許任傳授之針法 有名當世 余於二公 得聞其緒餘 故詳記之

58) 『太醫院先生案』 淸州 崔有泰 大叔 己巳 孝宗辛卯科 應遠 子 腫敎活別 金浦 陽川 崇祿

59) 『太醫院先生案』 海州 吳鼎和 殷卿 庚辰 腫敎活別 移仕同參

『議藥同參先生案』 海州 吳鼎和 殷卿 庚辰 活人別提

심지어 조선후기에는 허임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유행하여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18세기의 소아과 전문의서 『급유방(及幼方)』에 실려 있는 일화이다. 『급유방』의 저자 조정준은 숙종대에 최유태와 오정화가 모두 허임의 침법을 배워 당대에 이름을 날렸다고 소개한 장본인인데 실은 허임의 침구법이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은근히 비판하려고 한 두마디 더 기록했다고 한다.

무식한 속의(俗醫)들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무조건 벽적(癖積)이라고 하면 침으로 찔러 피를 내고 뜸으로 지지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들은 경험담이라며 기록한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한 아이가 겨우 돌이 되었는데 젖을 너무 먹어 배와 옆구리가 팽팽하여 그득하고 신열이 그치질 않고 잠을 못자는데도 여러 의원들은 여전히 냉제(冷劑)를 사용하고 나아가 벽(癖이) 되어 돌처럼 딱딱하게 되자 시골의 한 의원(鄉醫)이 벽을 불로 지지고 한 의원이 침으로 이를 터뜨리고 또 한 의원은 중완(中腕)을 침으로 찔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획일적 방법이 매우 무리한 것이라고 첨언(添言)하였다.

조선의 속방에 별초(鰲草)와 백두옹(白頭翁)을 벽(癖) 부위에 붙여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데 역시 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살갓을 터뜨려 안에 맺힌 기를 통하게 하여 내보내 풀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시골의원들이 철침(鐵針)으로 지지는 것 역시 뜸 종류 이기는 하다. 그러나 침으로 찔러 터뜨리는 것은 너무나 결점이 많고 무리한 것으로 짓이다.⁶¹⁾ 세속의 모든 의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침으로 환부를 찔러 피를 내고 고름을 내다가 도리어 악화시키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지만 조정준이 소개한 일화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허임을 통해 이어지는 치종의 침자방혈(針刺放血)이 시속(時俗)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허임의 의학이 치종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침구의로서의 그의 위상은 널리 일본학계에도 알려진 바 있다. 무구자(無求子) 김중백(金中白)은 당대 조선의 명의였는데

60) 『及幼方』 권7 <癖積> 一小兒生纔周歲 乳食不節 腹脅脹滿 身熱咳嗽 夜則多啼 不寐到曉方歇 余曰此癖積也 當以白餅子下之然後 調補脾胃 主家不信 專用針治幾四五朔 元氣漸敗 癖氣倍肆 余曰溫補脾胃 不可少緩也 衆醫以爲身熱煩燥 夜不能寐 皆熱也 而參朮補劑 決不可用 乃服牛黃月經等涼劑 身熱漸加 嘔泄并發 脅癖堅硬如石 病家悶之 廣問醫士 有一鄉醫 以鐵點烙於癖塊 一醫以針裂破魚際 一醫又針中腕而竟不救

61) 上同. 我國俗方 鰲草白頭翁貼癖塊上 腐爛肌肉 亦化癖之類耶 槩肌肉潰破 內結之氣 通泄解散 不無其理 鄉醫之點烙 亦灸之類 至針破裂缺 極甚無理也

그도 허임으로부터 의학을 전수받은 바 있었다.

당시 일본에 파견된 조숭수(趙崇壽)는 조선 침구의 특징에 대해 묻는 일본 의원에 대해 침구(鍼灸) 보사(補瀉)를 설명하면서, 침을 잘 놓는자는 보사의 방법에 능통하지만 용렬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침 놓는 방법이 매우 큰 것이라 옛 사람들도 쉽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조선에는 허임(許任)이 가장 침을 잘 놓았으며 김중백이 이를 이어 받았다고 전했다.⁶²⁾

김중백은 침구 뿐 아니라 약물에도 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748년 4월 27일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원에게 일본의 직해룡(直海龍)이 대관빈관(大阪賓館)을 찾아가 인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질문한 바 있었다. 직해룡(直海龍)은 인삼의 채취, 금기, 사용부위 등 여러 의견들을 묻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조선의원 조숭수는 인삼 잎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이 조선의 명의(明醫) 금중백(金中白 ; 號 无求子)가 창안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⁶³⁾

이상과 같이 허임의 의술은 한편으로는 방서(方書)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후학(後學)들을 통해 조선후기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중국과 다른 조선 침구의학의 독특한 양상을 만들어갔던 것은 물론이다.

6. 맺음말

본고는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 조선 치종의학의 전통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허임 본인도 출신 후에 치종교수직을 역임하면서 치종 의술을 가르치고 경험을 쌓았던 이력이 있었으며, 그의 후학들 역시 대부분 치종의로 활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치종의(治腫醫) 제도는 종기 치료에 대한 조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62) 『桑韓醫問答』 卷下

然善鍼者 卽有應焉 又非庸工所可爲也 鍼之道其大矣哉 古人已難攀 吾東有許任者善焉 有金公中白者繼之 今也則亡 可悲也夫

[본서는 1748년 조선 통신사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때 일본인 의사인 河村春恒과 朝鮮醫官 趙崇壽와의 사이에 진행된 의학관련 문답을 정리한 책이다]

63) 『班荊閒談』

復：弊邦亦或用參葉 而以人參極貴難得之故耳 不過取其人參葉 故意其有參味故也 自五十年以前始用之 非古法也 有參葉獲奇效之徵 語一條今不錄 稟：何人姓名始用之 復：弊邦明醫金公重百號無求子

마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학의 전통과 경험은 허임 침구 의학의 독자성을 담보하는 원천이 되었다. 단순히 중국 의학을 정리하거나 베끼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기를 쪼고 피고름을 빼내는 과정에서 침자(針刺)와 방혈(放血)을 위한 항구(缸灸)와 같은 독특한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허임 의학은 침구술 뿐 아니라 항구(缸灸)를 이용한 치종(治腫) 전통을 고려한 조선 침구 의학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침구경험방』이 침과 뜸을 중심으로 한 의서였음을 잊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鍼灸醫 許任의 공주정착과 공주문화

임 선 빈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2. 허임의 공주정착 배경
3. 허임의 공주정착과 부전동
4. 허임 관련 유산의 활용과 공주문화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중기의 인물인 허임(許任)은 허준이 인정한 당대 최고의 침구의(鍼灸醫)였다. 허임이 살았던 시기는 여러 해에 걸친 왜란으로 인해 약재가 부족하고 전쟁의 부상자가 속출하여 외과적 진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침구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 그는 침구의이며 치종의(治腫醫)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허임에 대해서는 《침구경험방》의 저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허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서술하고 있다.

허임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명의(名醫). 본관은 양천(陽川).¹⁾ 악공(樂工) 억복(億福)의 아들이다. 상민 출신으로, 침구술에 뛰어나 선조 때 임금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東班)의 위계(位階)를 받았다. 1612년(광해군 4) 8월에 광해군이 해수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종하였으므로 3등공신과 의관록(醫官錄)에 기록되었고, 1616년에는 영평현령(永平縣令)에 이어 양주목사·부평부사를 지냈으며, 1622년 수년 동안 입시수침(入侍授鍼)한 공으로 남양부사에 특제되었다. 저서로는 《침구경험방 鍼灸經驗方》과 《동의문견방 東醫聞見方》이 있다.

다행히 최근 《침구경험방》을 분석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오고, 2006년에는 허임기념사업회의 전시회를 통해 허임의 생애와 활동이 많이 밝혀졌다.²⁾ 특히 허임의 묘소가 공주에 남아 있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공주에 살고 있으며, 공주에 허임의 제자 최우량이 있었음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공주는 침구의 허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고을이었다.

본고는 허임과 공주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허임의 공주정착 배경과 정착과정, 허임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전동에 대해 알아보고, 허임이 남긴 유산을 공주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허임의 공주정착 배경

허임은 공주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 허임의 아버지는 양양관노(襄陽官奴)이고, 어머니는 재상 김귀영(金貴榮)의 사비(私婢)라고 한다.³⁾ 양양은

- 1) 이 사전에서는 許任이 陽川許氏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鍼灸經驗方》 서문에서 ‘河陽 許任 識’라고 밝히고 있듯이 허임은 河陽許氏이다.
- 2) 박문헌,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2002,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상창,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2004, 上海中醫藥大學 박사학위논문.
허임기념사업회, 『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 2006. 7.
- 3) 『苔泉集』 권5, 記聞, 許任官奴之子而至於封君. 『태천집』은 1874년刊이지만, 저자인 閔仁伯(1552-1626)은 허임과 동시대 인물이다. 『하양허씨세보』에 의하면, 허임의 아버지가 許珞(배위 평양박씨)이고 할아버지는 許宗(배위 단양이씨)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대의 또 다른 기록(『藥峯遺稿』 권2, 詩, 平海郡逢舊樂師許弄五言古詩)에는 허억봉에게 許弄(樂師 출신)이라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양허씨가 이름에 외자를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억봉이 족보에는 외자인 허락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겠다.

강원도 양양도호부를 지칭한다. 어머니의 상전인 김귀영(1520-1594)은 조부의 임소(任所)인 청풍에서 태어났으며, 1540년 생원과 진사 양시에 모두 합격하였는데, 사마방목에는 그의 거주지가 ‘경(京)’으로 되어 있다. 김귀영은 선조 27년(1594)에 희천(熙川) 배소(配所)에서 졸(卒)하자, 충주(忠州) 덕산동(德山洞)에 장사 지냈다. 따라서 허임의 생장과정에서 공주와의 연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허임은 사후(死後) 공주에 묻혔고, 그의 직손들이 오늘날까지 공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임은 공주와 무슨 연고가 있었기에 공주에 묻혀 있을까?

허임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공주와 특별한 연고를 맺게 되었다. 허임과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선조 31년(1598)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허임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부터 광해군과 함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허임을 위성공신(衛聖功臣) 3등으로 녹훈하는 과정을 수록한 광해군 4년(1612)의 기사이다.

빈청이 아뢰기를, “許任을 녹훈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는, 그 당시의 일기를 상고해 보니 계사년 11월 7일 상계서 海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을 맞을 때 허임이 입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參禮驛에서 주둔해 있을 때 허임이 입직하였으며, 이 뒤로는 으레 3일 간격으로 입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車駕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처음부터 수행한 일은 懸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醫官을 녹훈하는 것은 한때의 특명에서 나온 것인데, 鄭禮男 등이 녹훈에 참여된 뒤로 사람들이 이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소연한 것으로 인해서 속속 正勳에 녹공하기를 의논하는 것은 아마도 사체에 방해가 있을 듯합니다. 오로지 상계서 참작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허임은 서남쪽으로 행할 때 공로가 아주 많았으니, 3등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⁴⁾

임진왜란 발발 당시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하던 중 평안도 박천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는 분조(分朝)를 시행했다. 사태를 보아 선조는 중국 요동으로 떠나고, 광해군이 남아서 종묘와 사직을 지키며 전투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선조 25년(1592) 6월부터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면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를 돌며 민·관·군을 위로하고 의병활동을 독려했다. 선조 26년(1593) 정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은 조선정부를 대표하여 참여했고, 그해 4월에는 위협을 무릅쓰고 호남지방에 이르러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軍民)을 격려하는 등 국난 타개에 온 힘을 기울였다.

4)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임자조.

허임은 선조 26년(1593) 임진왜란 중 광해군이 서남행으로 행차할 때에 수행하여 11월에는 해주에서, 12월에는 삼례역(參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고 『광해군일기』는 전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당시 광해군의 행차는 곧 허임의 행로가 된다. 광해군은 선조 26년(1593) 평안도를 순회하다가 8월 중순에 황해도로 들어갔고, 8월 20일부터는 해주에 머물렀다. 11월에 이곳 해주에서 허임이 광해군을 치료한 것이다. 허임은 늦어도 임진왜란 발발 다음해인 선조 26년(1593) 하반기부터 광해군과 동행하고 있었다.

당시 광해군은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인 인후증으로 침을 맞고 있다.⁶⁾ 당시 조정에서는 광해군의 병환으로 인해 호서[호남]행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의(鍼醫)인 허임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그해 11월은 윤달이 끼어 있었다. 광해군은 해주에서 개성을 거쳐 윤11월 8일에 경성에 들렀다가 다시 남쪽으로 향한다. 윤11월 19일에 과천을 거쳐, 수원부(20일), 진위현(23일)을 지나, 윤 11월 24일 직산현에 머문다. 원래 이곳에서 공주로 가는 길은 천안을 거치는 차령로(車嶺路)가 일반적인 행로이지만, 광해군은 온양(25일)을 거쳐 각홀로(角屹路)를 통해 유구역(29일)에 머문 뒤, 12월 1일 공주에 이른다.⁷⁾ 광해군이 각홀로를 통해 공주

5) 위와 같음. 그러나 『선조실록』은 내용이 워낙 소략하기 때문에 광해군의 행차시 허임의 수행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6)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경술조.

7) 당시 충청도의 왜구 침입상황을 보면, 忠州·淸州 등 진과 淸風·丹陽·槐山 등 군과 文義·堤川·懷德·延豐·陰城·淸安·鎭川·永春·報恩·永同·黃澗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점거당하였던 곳도 있었던 반면에, 公州·洪州 등 진과 林川·泰安·韓山·舒川·沔川·天安·瑞山·沃川·溫陽 등의 군과 鴻山·德山·平澤·稷山·定山·靑陽·恩津·懷仁·鎭岑·連山·尼山·大興·扶餘·石城·庇仁·藍浦·結城·保寧·海美·唐津·新昌·禮山·木川·全義·燕岐·靑山·牙山 등 현은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1593. 6. 5). 광해군의 행로는 이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주를 비롯한 兩湖가 왜구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공주목사 許頊(1548~1618)의 공이었다(금산전투). 그는 1591년 공주목사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금강을 굳게 지켜서 호서·호남 지방을 안전하게 하였고, 僧將 靈圭를 불러 도내의 승군을 가려뽑게 하여 장수로 삼아 의병장 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전공을 세웠다. 1592년 9월 9일 공주목사에서 곧 바로 충청감사에 의망되었다. 인망이 가볍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도내의 物情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고 달리 합당한 사람도 없어서, 그대로 충청감사에 임용되었다. 1593년 10월 29일 윤승훈을 충청감사로 제수할 때까지 감사직을 수행했다. 허육은 서울수복을 위하여 군대를 通津·禿山城 등지로 주둔시키다가 도원수 權慄로부터 內浦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군량을 변통치 못한다고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곧 이조의 요청과 柳成龍의 추천으로 형조참의에 임명되고, 請糧使로 명나라에 건너가 산둥지방의 곡식 2만 2700섬을 얻어왔다. 허육은 양천허씨였다.

경역에 접어들었다면, 유구역에서 신평 사곡을 거쳐 단평역(현재의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을 지난 후 웅진나루(곰나루)를 건넌 것이다. 이 웅진나루는 후술하는 부전동의 남단, 연미산과 채죽산 사이에 위치한 나루이다.

공주에 머물고 있던 12월 2일에는 분비변사라고 일컫던 동궁의 행차를 무군사(撫軍司)라 명명하고, 배행하는 2품 이상의 재신을 당상으로 삼았다. 좌찬성 정탁(鄭琢), 분호조 판서(分戶曹判書) 한훈(韓渾), 분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한성부 좌윤 김우옹(金宇顥) 등이 무군사에 참여하였다.

광해군은 공주에서 13일까지 머물다가 전주로 출발하였다.⁸⁾ 그리고 16일 전주에 도착해서 기민들을 돌보는 등 민심을 수습한다.⁹⁾ 특히 전주(全州)에 머무르며 과거를 실시하여 문과에서 윤길(尹喆) 등 9인과 무과에서 1천여 인을 뽑았다. 이곳에서 다시 허임의 행적이 나타난다. 12월 22일 전주 인근에 있는 삼례역에 주둔해 있을 때에 허임은 광해군에게 3일 간격으로 침을 냈다.

광해군은 다시 공주로 돌아왔다. 공주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조 27년(1594) 1월 1일에는 공주에 머물고 있었다. 이 후 2월 21일까지 50여 일 동안 공주에 머물렀다.¹⁰⁾ 이때 허임도 공주에 함께 머물며 지역민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광해군은 2월 21일 다시 공주를 출발하여 홍주(洪州)로 향하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정산현에 머물렀다.¹¹⁾ 당시 정산현에는 사계 김장생이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청양현(22일)을 거쳐 23일에 홍주에 도착한 후 8월까지 홍주에 머물렀다. 광해군은 호남에서 올라오는 총병 유정을 보기 위해 8월 6일 홍주에서 공주로 출발, 7일 공주에 도착한다.¹²⁾ 유총병은 13일 서울에 도착하고,¹³⁾ 광해군은 20일 공주를 출발 8월 25일 서울에 도착했다.¹⁴⁾

8)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기사조. 당시 전주부윤에는 崔岵이 재직하고 있었다. 최입은 선조 25년 9월 9일 허옥의 뒤를 이어 公州牧使에 제수되었다가 9월 13일에 다시 전주부윤에 제수되었다.

9)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병자조.

10)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정월 경진조, 동 권48, 선조 27년 2월 경오조.

11)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경술·경오조.

12)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신해·임자조.

13)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무오조. 유정은 서울에서 명에 원병을 파견하는 문제와, 세자책봉주청사를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최입이 주청부사로 다녀왔다.

14)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을축·경오조. 이 때의 행차는 전의현(20일), 직산현(21일), 진위현(22일), 수원부(23일), 광주의 민가(24일)를 거쳐 25일에 入京하였다.

광해군은 공주에 머물고 있던 8월 18일에 다음과 같이 영(令)하였다.

내가 세 차례나 이 고을에 왔으니 목사나 관관의 노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각각 靑布 2필을 내리어 간탁하나마 장려하는 뜻을 보이겠다. 또 오는 20일에 궁에서 나갈 때는 父老들을 불러 모아 민간의 폐단을 묻겠다.¹⁵⁾

이에 공주 유생 홍함(洪涵) 등 1백여 명은 상소하여 세자의 행차(鶴駕)가 더 머물러 인심을 진무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허임은 적어도 선조 26년(1593) 11월부터 선조 27년(1594) 8월까지의 광해군과 동행하며 군민(軍民)을 치료했을 것이다. 특히 허임이 공주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때로 보인다. 광해군이 공주에 도합 80여일을 체류해 있었기 때문에 허임은 적어도 그 이상 공주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을 고치는 의원인 허임이 공주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낼 인연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허임은 다음해인 1595년 침의 박춘무가 수령으로 있는 임천군(현 부여군 임천면)을 방문하였는데, 이때에도 공주를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¹⁶⁾

사실 조선시대 공주는 육로와 수로 교통의 요충지였다.¹⁷⁾ 우선 육로상으로 공주는 호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간 교통거점이었다. 호남지방에서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서 호남지방에 이르기 위해서 공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이었다. 고려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하여 나주로 피란할 때, 그는 곱나루를 건너 공주에 이르러 수일을 머물렀고, 서울(개성)로 귀경할 때 역시 공주에서 며칠을 묵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이 서울로 올라가는 경로도 공주를 거친다. 동학농민전쟁기 호남지방에서 일어난 전봉준의 동학군이 서울을 목표로 북상할 때에도, 공주는 반드시 선점해야 할 거점이었다. 이 때문에 공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우금치는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대표적 현장이다. 이 길이 조선 후기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1770)에 의하면, ‘서울 서남쪽으로 제주에 가는 길로 다섯 번째 역로[京城西南抵濟州路第五]’에 해당한다. 남북간의 도로만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였다. 『여지도서』에는 공주목에 다음과 같은

15) 『선조실록』 권54, 선조 27년 8월 계해조.

16) 朴春茂는 李之菡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 趙憲은 상소문에서 그의 恬靜自守를 賞讚하기도 하였다.(『선조수정실록』 권20, 선조 19년 10월 임술조)

17) 윤용혁, 「지정학적으로 본 공주」, 『충청감영 400년』(2003) 18-24쪽.

8개의 도로가 제시되어 있다.¹⁸⁾

유성로(儒城路) - 동쪽으로 회덕 경계까지 69리, 대로
 차유령로(車踰嶺路) - 서쪽으로 대흥 경계까지 69리, 대로
 경천로(敬天路) - 남쪽으로 니산 경계까지 50리, 대로
 차령로(車嶺路) - 북쪽으로 천안 경계까지 50리, 대로
 대교로(大橋路) - 동북쪽으로 연기 경계까지 20리, 중로
 정치로(鼎峙路) - 서남쪽으로 부여 경계까지 50리, 중로
 공서원로(公西院路) - 서남쪽으로 정산 경계까지 30리, 중로
 각홀로(角屹路) - 서북쪽으로 온양 경계까지 80리, 소로

공주가 갖는 교통상의 거점성은 육로교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주는 우리나라 대표적 내륙수로의 하나인 금강의 중류에 위치하여 수로와 육로의 간선 교통체계가 서로 마주치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편(船便)은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혈관과 같은 것이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조운이라 하여, 조세의 수취와 운송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편에 의하여 대량의 화물과 곡식이 안전하고 빠르게 운송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증환이 『택리지』에서 선운(船運)의 중요성을 “물자를 옮기는 데 있어 말이 수레보다 못하고, 수레는 배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20세기 초,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같은 선운이 금강에 변성하였고, 공주는 그 중간 거점이었다. 물류(物流) 이외에, 정기 여객선이 금강을 오르내리던 일제시기에 공주에서 금강 하구까지 6시간, 그리고 금강 하구 군산에서 공주에 이르는데 8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공주는 편리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육로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장악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점은 수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로는 평상시 교류와 상업 등에 매우 유용한 교통로였지만, 유사시 이를 이용하여 공주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공주가 금강의 하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수로를 이용한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이를 중간에 저지할 상당한 시간과 조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시에도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錦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홍주(洪州)는 해적(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는 곳이었다.²⁰⁾

18) 『여지도서』 공주목 도로조

바로 이와 같은 공주를 허임은 눈여겨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임이 바로 공주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광해군 즉위 초에 허임은 전라도 나주에 있었다. 광해군 즉위 다음해인 1609년 10월 당시 허임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를 딱하게 여겨 허임을 마전군수에 임명한다. 마전군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일대에 해당한다. 광해군이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데 대한 보답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 근처에 근무하도록 하여 병이 나면 불려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허임을 마전군수로 임명하는 일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줄기찬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²¹⁾ 이듬해에는 첨지(僉知: 중추부의 당상 정3품 무관 벼슬) 근무처가 나면 허임을 제수하라고 하고, 생활이 어려워므로 우선 그 품계에 준하는 녹을 주라고 명하였으나, 이 또한 실행되지 않았다. 당시 허임은 서울이 아닌 전라도 나주에 가 있으면서 전교를 내려 올라오기를 재촉하여도 명에 따르지 않고 있었다.²²⁾ 가난한 허임의 거주지는 전라도 나주였던 모양이다. 허임이 전라도 나주에 머물고 있었다면, 또한 공주는 그가 한양을 왕래할 때 수시로 거치는 지역이었다.²³⁾

3. 허임의 공주정착과 부전동

허임은 광해군 5년(1613) 3월에 위성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²⁴⁾ 위성공신(衛聖功臣)이란 임진 왜란 때 왕을 따라 이천(伊川)·전주(全州)에 갔던 자들을 포상한 것으로 1등공신 10명, 2등공신 17명, 3등공신 53명이었다. 허임은 3등 50위에 등재되었다.

19)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신묘조.

20) 『선조실록』 권82, 선조 29년 11월 무오조.

21) 『광해군일기』 권21, 광해군 원년 10월 병진~계해조.

22)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정사·무오·신유조.

23) 충청도 금강유역의 입향유래 가운데에는 종종 호남에서 한양을 왕래하다가 이곳에 터잡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절재 김종서의 조부 김태영 사례 등)

24) 공신교서의 반포는 3월 12일(경오)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행해졌다. (『광해군일기』 권64, 광해군 5년 3월경오조)

<표 1> 衛聖功臣 명단

등 위	성 명
一等	崔興源, 尹斗壽, 鄭琢, 李恒福, 海豐君耆, 尹自新, 沈忠謙, 順義君景溫, 順寧君景儉, 柳自新
二等	李憲國, 柳希霖, 李有中, 任發英, 節愼君壽崐, 姜綢, 李覺, 俞泓, 韓準, 寧山君禮胤, 錦山君誠胤, 順昌君彥, 趙公瑾, 鄭昌衍, 柳希奮, 黃愼, 金權。
三等	李純仁, 柳挺立, 春溪都正彥, 琅城君聖胤, 宜城都正孝忠, 許潛, 柳祖訥, 姜璿, 尹健, 金信元, 李應寅, 柳淇, 崔豈, 柳希聃, 俞大建, 張迥, 閔思權, 朴宗男, 柳夢寅, 朴晉, 吳百齡, 趙應祿, 任禮臣, 趙國弼, 韓守謙, 金琢, 李尙毅, 鄭希玄, 張洌, 申熟, 李公沂, 梁子儉, 崔潤榮, 鄭大吉, 朴夢周, 朴奉琳, 金彥海, 李應華, 尹鳴殷, 李彥慶, 金漢傑, 鄭禮男, 韓應祿, 金許龍, 金元男, 全有馨, 金應龍, 金忠男, 許昕, 許任, 申應祿, 曹興立, 韓天斗

3등공신에게는 공신교축(功臣敎軸)과 화상(畫像)을 내려주고, 관작의 품계를 1등급씩 올려주었으며, 그의 부모와 처자도 또한 1등급씩 올려주었다. 공신호는 적장자가 세습하여 녹을 잃지 않도록 하고, 사유의 은전을 영원히 후손 대대로 미치도록 하였다.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의 품계를 올려주었다. 더불어 반당(伴尙) 6명, 노비 3구, 구사(丘史) 3명, 토지[田] 20결, 은자 5냥, 비단[表裏] 1단, 내구마 1필씩을 내려 주었다.²⁵⁾ 허임에게도 공신의 특권과 20결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가 사패지로 주어졌다. 이제 허임은 더 이상 가난한 침구의가 아니었다. 허임에게 내려준 사패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임이 사후에 공주에 묻히고 후손들이 공주에 거주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²⁶⁾

광해군 재위기간 허임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관직도 승승장구하여 영평현령

25) 이는 같은 3등공신인 李純仁(1533~1592), 柳夢寅(1559~1623)에게 내려준 공신교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순인의 공신교서 내용은 『孤潭逸稿』(권4, 부록, 잡저, 교서)에 실려 있으며, 유몽인에게 내린 공신교서는 실물이 남아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보물 제1304호, 柳夢寅衛聖功臣敎書). 이외에도 1등공신 鄭琢(1526~1605)의 공신교서가 남아 있다(보물 제494-2호, 藥圃遺稿 및 文書-衛聖功臣敎書)

26) 『하양허씨세보』에 의하면, 許任의 묘소는 무릉동, 아들인 許晟의 묘소는 새재, 손자인 許芷의 묘소는 부전동(뜸밭)에 위치한다. 허임의 묘소가 부전동이 아닌 무릉동에 위치한 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육로로 이동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금강의水路가 활성화 되어 있던 조선시대에는 부전동과 무릉동, 새재 등은 바로 이웃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永平縣令, 광해군 8년, 1616), 양주목사·부평부사(광해 9년, 1617), 남양부사(광해 14년, 1622) 등 경기지역의 요직에 제수되고 있다.²⁷⁾ 이는 광해군이 침을 맞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입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침을 맞고 효과가 있으면, 자금을 더하거나 상물(賞物)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²⁸⁾

1623년 3월 12일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세력들은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을 관직에서 내쫓기 시작했다. 반정 당시 허임은 남양부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경기감사는 3월 24일 침의 중에서 금천현감을 하고 있던 안언길을 쫓아내라고 계를 올리고,²⁹⁾ 26일에는 남양부사 허임도 쫓아내라고 인조에게 청한다.³⁰⁾ 나아가 광해군 재위시기에 책봉된 공신들의 훈봉(勳封)을 모두 취소시키고 있다. 허임에게 내려진 위성공신도 삭훈되었다. 이원익(李元翼)은, “위성훈(衛聖勳)이란 책록이 광해조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호가 있었지만, 그 실상은 종묘와 사직을 보호한 것이므로 광해의 일과는 관계가 없으니 아울러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복훈(復勳), 호성훈(扈聖勳) 추록, 정사훈(靖社勳) 책록시 포함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결국 위성공신이 삭훈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사된 토지와 노비만은 회수하지 않았다.³¹⁾ 따라서 허임에게 하사된 사패지도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성공신에게 내려준 화상과 불천지위 사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163년이 지난 정조 10년(1786)의 『일성록』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西部의 유학 李覲의 상언에, ‘6대조 錦山君 李誠胤은 한결같이 훈신의 규례대로 특별히 木主를 옮기지 말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성윤은 宗戚의 신하로서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날을 당하여, 직언으로 상소해서 간신을 배척하였으니 참으로 숭상할 만합니다. 仁廟께서도 새로 즉위한 뒤에 단지 勳號만 제거하였을 뿐, 賜牌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특은과 관계되는 것이고, 錄勳된 것은 이미 光海君이 衛聖功臣으로 녹훈한 것입니다. 勳名이 이미 깎였으니, 부조하는 문제는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³²⁾

27) 『광해군일기』 권99, 광해군 8년 정월 갑오조. 동 권112, 광해군 9년 2월 정미조. 동(태백산본), 광해군 9년 3월 갑술조. 동 권116, 광해군 9년 6월 갑인조. 동 권176, 광해군 14년 4월 신미조.

28) 『광해군일기』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임술조.

29) 『승원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4일.

30) 『승원원일기』 인조 원년 3월 26일.

31) 『성호사설』 권17, 人事門, 衛聖勳.

이 기사에 따르면 위성공신에게 내려준 불천지위(不遷之位) 사당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허임의 불천지위 사당도 100여년 전까지 부전동(우성면 내산리)에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허임은 인조조에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침의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인조 6년(1628)에는 수차에 걸친 인조의 시침에 참여하여, 반숙마 1필, 표범가죽 1령 등을 상으로 하사받기도 했다.³³⁾ 아마 여기에는 인조반정의 핵심세력이며, 후에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이경석과의 친분관계도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후 허임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인조 17년(1639) 8월 12일 인조가 식은땀을 흘리는데 낫지를 앓자, 내의원 도제조 최명길이 “허임이 청한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허임을 소개했다. 그가 “허임의 의술이 지금의 의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허임이 늙어서 말을 타고 와서 침을 놓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자 인조는 “병세를 써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는다.³⁴⁾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8일 허임으로부터 임금의 병에 대한 침구처방이 도착했다.³⁵⁾ 허임의 침구처방을 받아오자고 의논한 날로부터 6일 뒤이다. 이 기간은 공주에 다녀올만한 시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공주목조에는 공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323리라고 하였으며, 『여지도서』에서도 서울까지는 공주의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23리로 3일 반 정도 거리라고 적고 있다.

이 시기 허임은 공주에 거주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인조 19년(1641) 『승정원일기』에는 내의원이 인조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에 “공주에 사는 최우량이 허임에게서 침을 배웠는데 그 의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기록이 등장한다.³⁶⁾ 최우량은 공주에 사는 유학(幼學), 즉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이었다. 허임에게서 침을 배운 그가 일이 있어 서울에 왔다가 재신 중에서 창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칠팔자결’ 침을 놓자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 최우량은 바로 다음날인 5월 20일 오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인 부사

32) 『일성록』 정조 10년 2월 26일(경자).

33) 『승원원일기』 인조 6년 4월14일, 8월 26일 27일, 9월 2일 6일 8일 10일, 9월 2일, 10월 22일 등.

34) 『승원원일기』 인조 17년 8월 12일.

35) 『승원원일기』 인조 17년 8월 18일.

36) 『승원원일기』 인조 19년 5월 19일.

용(副司勇)의 관직에 제수됐다.³⁷⁾ 그 후 최우량은 내의원 참의로 활동하는 기록이 이어진다.³⁸⁾ 효종 7년(1656) 7월 14일에 부사용으로 다시 관직이 제수되는 기록이 있고,³⁹⁾ 효종 9년(1658) 7월 27일 경외(京外)의 침과 약에 뛰어난 사람들을 초치(招致)하는 문제에 대한 내의원 도제조의 계에도 여러 참의들의 이름과 함께 거명된다.⁴⁰⁾ 최우량은 『산림경제』에도 침의(鍼醫)로 거론되는 대목이 있다.⁴¹⁾

최우량(1599~1671)의 본관은 강화인데, 이들 강화최씨의 족보에는 벼슬이 부사과(副司果, 종6품)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허임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공주 우성면 내산리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곳 내산리에는 400여년 내려온 동계(洞契)가 있다.⁴²⁾ ‘뜸밭’이라 불리는 지명을 딴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가 그것이다. 현전하는 부전대동계의 좌목(座目)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663년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허임에게 침술을 배운 최우량과 함께 허임의 손자인 허지가 등장한다. 부전대동계에는 19세기 중반까지 허임의 후손 총 28명과 최우량의 후손 강화최씨 16명의 기록도 있다. 그리고 바로 허임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왔다는 하양허씨 종손가의 바로 뒷산에 최우량의 묘소가 있다. 허임은 노년에 바로 이곳 공주 우성면 내산리에 살면서 병자들을 진료하며 후학들에게 침술을 가르치고, 평생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허임의 원래 묘소는 공주군 장기면 무릉리였다. 허임의 묘는 1982년에 부모 묘와 아들 묘가 있는 공주군 우성면 한천리 무성산으로 이장되었다. 묘를 이장할 때 관 앞에서 조선백자 접시가 나왔다고 한다. 명기(明器)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허임이 말년에 정착하여 살았던 부전동은 어떤 마을일까? 부전동은 공주 치소의

37) 『승원원일기』 인조 19년 5월 20일.

38) 『승원원일기』 인조 21년 10월 15일.

39) 『승원원일기』 효종 7년 7월 14일.

40) 『승원원일기』 효종 9년 7월 27일.

41) 『산림경제』 권3, 救急痘瘡經驗方 鍼醫, 崔宇量이 일찍이 말하기를, "아들 在三이 痘疾에 걸려 危重하므로 朱砂와 龍腦를 平壤으로 구하러 보냈는데 약이 채 도착되기 전에 죽었고, 죽고 조금 있다가 약이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朱砂 콩 크기만큼과 용뇌 콩 반만큼 크기를 물 한 종발에 타서 죽은 아이의 입 안에 부어 주니 얼굴색이 점점 붉어지며 호흡이 통하고 黑陷이 모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하였다. 《잠답》

42) 이하 부전대동계에 관한 서술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임.

임선빈, 「공주 부전대동계의 성립배경과 운영주체」, 『백제문화』 24, 199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 『동방학지』 80, 199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북쪽에 접해 있는 마을이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우성면의 한천리·내산리·도천리·신웅리의 4개리, 15개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전동의 남쪽 끝에는 연미산과 채죽산이 있고, 그 사이에는 공주라는 지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고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을 간직한 곰나루가 위치하고 있다. 부전동은 그 형국이 이 곰나루 위에 놓여진 배[行舟形]와 같다. 따라서 마을이름이 이 나루위에 떠 있는 배라는 의미의 ‘뜬 배’에서 ‘뜬 밭’으로 다시 ‘뚝밭’으로 전화된 듯 하다. 이 ‘뚝밭’의 한자표기가 ‘浮田洞’이다. 이 부전동이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동리명으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浮田洞(뚝밭)’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부전동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전통촌락들이 그런 것처럼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북쪽에는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해발 614m의 무성산이 주봉으로 버티고 있으며, 남쪽에는 아름다운 금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부전동의 진산인 무성산으로부터 시작되는 2개의 능선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내려 뻗으면서 좌청룡·우백호의 형상으로 부전동의 동서를 감싸고 있으며, 이 능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앞으로 해발 192m의 연미산(여미산)과 170m의 채죽산이 동서에 각각 우뚝 솟아 있고, 이 연미산과 채죽산의 사이에 곰나루[熊津]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전동의 형상을 부전동민들은 일찍부터 ‘웅진(熊津 : 곰나루)의 북쪽 무성산(武城山)의 남쪽에 펼쳐져 있는 20리 긴 골짜기[二十里長谷]’라고 묘사해 왔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부전동의 중앙에는 북쪽에 위치한 무성산의 계곡에서 발원하여 남쪽의 곰나루[錦江]로 흘러 들어가는 ‘약천내’가 있고, 이 내의 상류에는 1961년에 준공된 한천저수지가 있어서 부전동 일대의 관개에 이용되고 있다. 부전동 전답의 관개는 거의 전적으로 이 약천내에 의존해 왔는데, 상류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그 수량이 경지면적에 비해 충분치 못하였다. 따라서 부전동에서는 마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천내의 관리를 중시하여 최근까지도 무성산에 대한 산제와 함께 이 내에 대한 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전통시대의 큰 마을(사족마을)은 흔히 몇 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전동도 나주의 금안동(金安洞)이나 영암의 구림리(鳩林里)와 같이 주변의 열두 동네를 하나의 마을범위 속에 포함하고 있어서 ‘뚝밭 열두동네’라고 불리워졌다. 열두동네의 명칭은 구술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북으로부터 나열해 보면 영천·대추나무쟁이·중말·장터·

승주골·안골·동성·장자동·안터·약천·깁변말·도고머리 등이다. 이 열두동네에는 최근까지도 각각 풍물이 보관되어 있었고, 1950년대까지도 두레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확인가능한 부전동 최초의 입향조(入鄕祖)는 태종조에 당진감무를 지낸 예안김씨 김숙량(金叔良)이다. 입향동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 김숙량이 공주이씨를 후처로 맞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숙량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큰 아들인 신(新)은 세조 10년(1464)에 문과에 급제하여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수관을 역임하고 낙안군수와 응교를 지냈다. 둘째 아들인 지(祗)는 단종 원년(1453)에 문과에 급제하여 세조 즉위 후에는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예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셋째 아들인 비(毗)는 중앙진출을 하지 않고 공주지역에서 사족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3형제는 모두 부전동에 묻혔다.

신에게는 수손(首孫)과 미손(尾孫)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특히 수손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현달하였다. 그는 세조 2년(1456)에 문과에 급제하고 성종 7년(1476)에 중시에 합격하였으며, 관직은 성균대사성 전주부윤을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렀는데, 그의 후손들은 부전대동계의 성립을 주도하고 있다. 수손의 아들인 사창(泗昌)은 옥과현감을 지냈으며, 손자인 반천(半千)은 중종 32년(1537)에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 사서 수찬 교리를 거쳐 승정원 승지에 이르렀다. 반천의 아들인 해(漑)는 명종 19년(1564)에 문과에 급제한 후 양사와 춘추관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상주목사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선조 26년(1593) 3월에 순직하였고, 그 후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미손의 후손은 목천으로 이주하여 부전동에 살지 않았다.

숙량의 둘째 아들인 지의 후손은 큰 아들인 신의 후손에 비해 중앙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중앙진출보다는 오히려 향촌에서의 사족활동이 주목된다. 지에게는 옥견(玉堅) 철견(鐵堅) 벽견(璧堅) 석견(石堅)이라는 네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옥견 철견 벽견은 공주향안에 올라있다. 이 4형제의 후손 중에서 부전동에 세거하는 사람들은 셋째 아들인 벽견의 계열이다.

예안김씨가 부전동에 정착한 이후 전주이씨 강화최씨 충원지씨 등이 차례로 부전동에 이주해 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예안김씨의 사위가 되거나 외손사위가 되면서 부전동에 입향하고 있다.

우선 전주이씨의 부전동 입향은 예안김씨 김수손의 사위였던 한재(寒齋) 이목(李穆)이 무오사화에서 처형된 후 그의 아들인 이세장(李世璋, 1497-1562)이 외향인 부전동에서 양육되면서 시작되었다. 예안김씨의 외손으로 부전동에 입향한 이 전주이씨 가문은 입향 후에도 이목의 증손인 이구호(李久濤)가 다시 예안김씨의 사위가 되는 등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예안김씨와 전주이씨의 부전동정착과 정착후의 사족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전동이 조선초기에는 훈구가문이 정착하고 있던 마을이지만, 기호지역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일찍부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을 여서로 맞이하는 등 사림화(士林化)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주이씨에 이어 부전동에 입향하는 사족은 강화최씨(江華崔氏)인데, 이 강화최씨의 부전동 입향도 죽산에 거주하던 최순(崔淳)의 셋째 아들인 덕준(德峻)이 예안김씨의 사위가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강화최씨가문도 전주이씨와 마찬가지로 우량(宇量)의 아들인 석제(石齊)가 예안김씨의 사위가 되어 예안김씨와 중첩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우량이 바로 허임의 제자였다. 충원지씨는 지봉휘(池鳳輝, 1564-1636)가 예안김씨의 외손사위가 되어 처향에 거주하면서 부전동과 인연을 맺는데, 입향시기는 임란직전인 16세기말로 추정된다.

『하양허씨세보』에 의하면, 허임의 아버지인 허락(許珞)의 묘소는 우정면 무성산, 허임의 묘소는 동부면 무릉동, 아들인 허정(許叟)의 묘소는 남부면 새재, 손자인 허지(許址)의 묘소는 부전동 지방암에 위치했으며, 허정의 배위는 안동김씨·만경노씨(繼配)이고, 허지의 배위는 예안김씨이다. 무릉동에 살던 퇴석(退石) 김인겸(金仁謙)이 안동김씨이며, 만경노씨는 부전동의 동쪽 너머 조왕동에 살았고, 예안김씨는 조선초기부터 부전동의 주인공이었다. 허지의 배위가 예안김씨라는 점은 하양허씨도 예안김씨의 사위로 부전대동계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 허임가계도

- ①⑨ 許宗 : 通政大夫戶曹參議, 배 단양이씨
 ②⑩ 許珞 : 漢城判尹, 묘 공주 우정면 무성산 서록, 배 평양박씨
 ②⑪ 許任 : 嘉善大夫行楊州牧使竭忠盡誠衛聖功臣河興君, 묘 공주 동부면 무릉동, 배 남원황씨
 ②⑫ 許晟 : 朝奉大夫行四山監役富平府使, 묘 공주 남부면 조현, 배 안동김씨, 계배 만경노씨
 ②⑬ 許址 : 묘 공주 우정면 부전 지방암, 배 예안김씨
 ②⑭ 許欽 : 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 묘 공주 지방암, 배 경주이씨, 계배 충원박씨
 ②⑮ 許潤 : 자 덕조, 묘 지방암, 배 안동김씨(통덕랑 김지함 여)

조선전기 부전동 사족가문은 공주 지역의 토착성씨(土着姓氏)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대개 조선초기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객반(客班)이었다. 선주사족(先住土族)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부전동 사족의 성장은 예안김씨인 숙량이 입향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타 성씨의 부전동 입향은 대개 예안김씨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즉 조선전기 부전동에 거주한 사족들은 주로 예안김씨와 그 사위 가문으로 이 마을은 이성동족(異姓同族)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호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이 사림화한 부전동 사족들은 16세기에 이르러 동계를 창설했는데, 이는 부전동에 제일 먼저 입향한 예안김씨와 그 사위 가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계적(族契的) 성격의 동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7세기에 들어서 양난, 자연재해, 이괄의 난 등과 같은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이 지역의 사족들은 하민을 포섭하는 상하합계 형식의 동계를 1663년에 중수하였다. 이때 중수된 동계자료는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비록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전동에서는 지금도 대동계가 운영되고 있다.

4. 허임 관련 유산의 활용과 공주문화

1) 허임 생애의 활용

허임의 생애는 매우 드라마틱하다. 부모는 관노와 사비였는데, 특히 부친은 악공으로 당대 최고의 피리꾼이었으며, 만년에는 거문고에도 능했던 만능 음악인이었다. 또한 학춤을 잘 추었다. 가무(歌舞)의 재능을 동시에 겸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미천한 신분과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허임은 임진왜란이라는 변수로 인해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광해군을 모시고 침구의로, 치종교수로 전란의 상흔을 위무하여 당상관에 오르고 위성공신에 책봉되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성에서 가까운 경기 중요 고을의 목민관을 역임하였으나, 인조반정으로 인생이 반전되어 관직에서 쫓겨나고 공신호는 삭훈되었다. 만년에는 공주에 정착하여 후진을 양성하며, 지나온 인생을 조용히 관조(觀照)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허임의 생애는 그 자체가 훌륭한 원형문화콘텐츠이다.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다면 흥미 있는 소설이 될 수 있으며, 드라마가 가능하고, 영화작품도 만들 수 있다. 작품의 배경에는 공주와 금강, 그리고 부전동이 있다.

2) 허임 테마공원 조성

허임의 침구술은 《침구경험방》으로 정리되었다. 이 침구경험방의 의료사적 위치는 ① 조선침구전문서의 효시, ② 애민정신에 의한 구급활명, ③ 조선 임상의학 선도한 우리나라 대표 의서로 생활의술 전개, ④ 일본, 중국에 의술 전파 등의 위상을 지닌다. 이러한 《침구경험방》의 집필처가 부전동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전동에 이를 기념하는 테마공원(가칭 허임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⁴³⁾

43) 허임 테마공원 구성은 허임기념사업회 손종양 이사와 중부대학교 허강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표 2> 허임 테마공원 구상

공 원 명	(가칭) 허임공원
내 용	허임 침구경험방의 집필지인 뜸발골 무성산 기슭에 동양의술의 핵심인 침구의학 체험공원을 건립하여 관광문화 자원으로 보급
장 소	뜸발골 무성산 기슭(금강 및 무성산 종합테마공원 프로그램과 연계)
세부주제	① 무성산 기슭의 비탈을 이용하여 인체의 앞쪽과 뒤쪽을 남녀로 각각 양각으로 부조하고 거기에 경락과 경혈을 표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락경혈을 찾아가는 다양한 놀이를 개발, 침구의학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인체동인 / 경체경락경혈 동인 대형 조형물 건립
	③ 침구박물관의 건립 : 국내에 한의학박물관은 있으나(강서구 허준박물관, 대구 한의학박물관), 침구전문박물관은 따로 없음 (일본의 모리노미야 침구박물관 참조)
	④ 경락경혈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⑤ 허임 생가 및 부조묘 복원, 허임 및 허억봉 묘소의 단장
	⑥ 허임의 아버지 '악공 허억봉 기념사업' : 우리나라 음악의 율려와 침구학의 경락 연계, 대금 등 국악체험 마을 조성, 공주의 국악인과 연계.

3) 부전동 인문·자연환경의 활용

허임이 만년에 부전동에 정착한 것은 부전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성산 남쪽의 깊은 골짜기[20리 長谷]에 펼쳐져 있는 부전동은 지금도 여전히 청정지역이다. 머지않아 인근에 고속도로 3개가 교행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등장할 것이다. 부전동은 조선시대 사족의 마을이었으며, 4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동계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고, 근래에는 선생님이 100여명 배출된 문향(文鄉)에 해당한다. 현재 부전동 마을 중앙에는 폐교를 활용한 웅진교육박물관이 있으며, 2006년 가을에는 부전동의 문필봉에 해당하는 연미산에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무성산 내에 약 20만

평의 자연휴양림(국유지)이 있고, 무성산 아래에 한천저수지가 있으며, 홍길동 굴 및 산성, 노루목 전설 등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부전동의 자연경관과 인문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허임침구경험방 체험관(침구전문기술센터, 무성산의 약초재배, 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자연미술 심화활동 및 생태체험 학습관, 생체리듬 치료관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표 3> 부전동(뜸밭) 출신 선생님 현황 (97. 2. 현재, 초등·중등교사 및 대학교수)

	任씨	李씨	吳씨	鄭씨	金씨	崔씨	朴씨	許씨	姜씨	申씨	盧씨	柳씨	尹씨	表씨	계
한천리	1				1		4								6
내산1구	8	3				7		2	1	3					24
내산2구	6	2			1			2			1			1	13
신웅리	5	9	8				1					3			26
도천리		3		8	5				2		2		2		22
계	20	17	8	8	7	7	5	4	3	3	3	3	2	1	91

4) 충청도 약재진상과 공주 약령시장 전통의 활용

조선시대 약재진상(藥材進上)은 관찰사의 책임하에 왕실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내의원에 상납되어 왕실어약에 사용되고, 혹은 왕이 조신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약재진상은 월령으로써 그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으며, 내시부에서 내의원에 차정된 환관이 관장하였다. 충청도관찰사의 약재진상은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있었다. 진상품은 도내의 각 고을에 분정하여 조달되었으며, 감영에서 직접 감봉(監封)하였다.⁴⁴⁾ 따라서 감영이 있던 공주에는 도내의 온갖 약재가 모이게 되었고, 이곳 공주에 약령시가 형성되었다.

44) 임선빈, 「충청도관찰사와 진상품」, 『충청감영 400년』 (2003) 118-130쪽.

<표 4> 『공주감영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충청도 약재진상

	진상물품과 수량
정월령	모향(茅香) 15근, 궁궁(芎藭) 1근, 청밀(淸蜜) 3두, 백급(白芨) 5근, 태수(胎水) 3승
2월령	창출(蒼朮) 14근, 백출(白朮) 2근 10량, 황기(黃芪) 3근, 적작약(赤芍藥) 12근, 진교(秦艸) 2근, 방풍(防風) 4근 10량, 백작약(白芍藥) 3근, 길경(吉更) 6근, 시호(柴胡) 4근 10량, 천문동(天門冬) 6근+3근(별정), 황백피(黃柏皮) 14근, 전호(前胡) 4근+6근(별정), 황금(黃芩) 4근+6근(별정), 백급(白芨) 9근+3근(별정), 맥문동(麥門冬) 3근, 박하(薄荷) 20근, 초룡담(草龍膽) 2근, 백부자(白附子) 2근, 모향(茅香) 20근, 택사(澤瀉) 7근, 남칠(藍柴) 1근, 백모근(白茅根) 1근, 담죽엽(淡竹葉) 5근
3월령	고삼(苦參) 5근, 택란(澤蘭) 10량, 백부자(白附子) 2근, 궁궁(芎藭) 2근
4월령	초룡담(草龍膽) 2근, 하교초(夏枯草) 5량, 학슬(鶴蝨) 5량, 초오두(草烏頭) 10량, 활석(滑石) 60근,
5월령	행인(杏仁) 3근, 정력자(蓼莪子) 10량, 금은화(金銀花) 3근, 담수(膽酥) 5전, 하마(蝦蟆) 5개
6월령	안식향(安息香) 7근, 옥리인(郁李仁) 5근, 건칠(乾漆) 8량, 청상자(靑箱子) 7량, 옥리근(郁李根) 4량, 모근(茅根) 3량, 박하(薄荷) 6근, 선복화(旋覆花) 10량, 청밀(淸蜜) 3두, 태수(胎水) 3근 백급(白芨) 5근
7월령	호유자(胡荽子) 1근, 호로파(胡蘆芭) 10량, 담죽엽(淡竹葉) 7량, 도인(桃仁) 2근
8월령	택사(澤瀉) 5근, 저실(楮實) 9량, 만형자(蔓荊子) 2근
9월령	방풍(防風) 2근, 당귀(當歸) 4근, 황기(黃芪) 3근, 창출(蒼朮) 4근, 전호(前胡) 2근, 토사자(免絲子) 4근, 대조(大棗), 모과(木果) 150개, 백국화(白菊花) 1량, 천문동(天門冬) 3근, 백급(白芨) 5근, 금은화(金銀花) 2근+3근, 맥문동(麥門冬) 5근, 백작약(白芍藥) 5근, 박하(薄荷) 11근, 초룡담(草龍膽) 3근, 모향(茅香) 40근, 택사(澤瀉) 8근, 산약(山藥) 7근, 오미자(五味子) 4승, 청밀(淸蜜) 5두, 비자(榧子) 10량, 목단피(牡丹皮) 6근, 구판(龜板) 5개
10월령	오가피(五加皮) 4근 10량, 위령선(威靈仙) 3근, 여로(藜蘆) 5량, 청밀(淸蜜) 2두
별정	백청(白淸)

약령시는 원래 감영 소재지로 모이는 약재 중에서 좋은 것을 상납한 후에, 나머지를 일 반에 판매하기 위해 만든 장터이다. 그런 까닭에 1달 동안 열리는 장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약초 재배자와 심마니, 상인과 한의사들이 모여들어 성시를 이루었다. 약령시는 상인 대표가 나서서 연명으로 문서를 만든 후, 수령을 통하여 중앙 정부까지 통보하고, 그에 따른 통첩을 받은 연후에 시작할 수 있었다. 그만큼 까다로운 시장이었다. 공주 약령시는 전라도 전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1730년경 출범하여 약 160년 간 계속되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대구 약령시는 음력 2월과 10월에 두 차례 열려서, 1달 간 계속되었고, 공주 약령시는 그 뒤를 이어 음력 3월과 11월에 1달 동안 열렸다. 그러나 공주 약령시는 외세가 밀려드는 갑오경장 이후 점차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대구의 경우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였고, 최근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옛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공주에는 ‘약령거리’라는 지명만 전해질 뿐이다.⁴⁵⁾ 최근 금산 인삼시장과 연산 대추 시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조선시대 감영고을이었던 공주에서 약재진상과 약령 시장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5. 맺음말

이상 허임의 공주정착과정을 살펴보고 허임유산의 활용에 대해 제언해 보았다. 허임은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 공주와 깊은 연고를 지니게 되었고, 위성공신 3등에 책봉되면서 공주지역에 사패지를 하사받아 공주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허임과 제자 최우량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공주 부전동은 그가 만년에 정착하여 《침구경험방》을 집필하고, 후진을 양성한 곳으로 추정된다. 공주의 역사인물로 새로 발굴된 허임관련 유산을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백년의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부전동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5) 오석민, 「공주 오일장의 흥망성쇠」, 『충청감영 400년』 (2003) 138-141쪽. 1920년경 공주 약령시도 한때 복 설된 적이 있었으나, 대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도로 대전에 다시 설치되면서 대구와 거리가 가까웠던 까닭에 미처 활성화되지도 못하였고, 곧 유명무실해졌다.

5권 1호

충청학과 충청문화

- 발 행 인 / 정덕기
 - 편집위원장 / 임선빈
 - 편 집 위 원 / 강종원, 오석민, 이길구, 이훈
 - 편 집 간 사 / 홍계연
 - 발 행 처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충남 공주시 중동 284-1 / www.cihc.or.kr
전화 (041)856-8664 팩스 (041)856-8663
 - 인 쇄 처 / 학예인쇄사
전화 (042) 625-1821
 - 인쇄 / 2006년 12월 27일
 - 발행 / 2006년 12월 30일
-

